

# 예술가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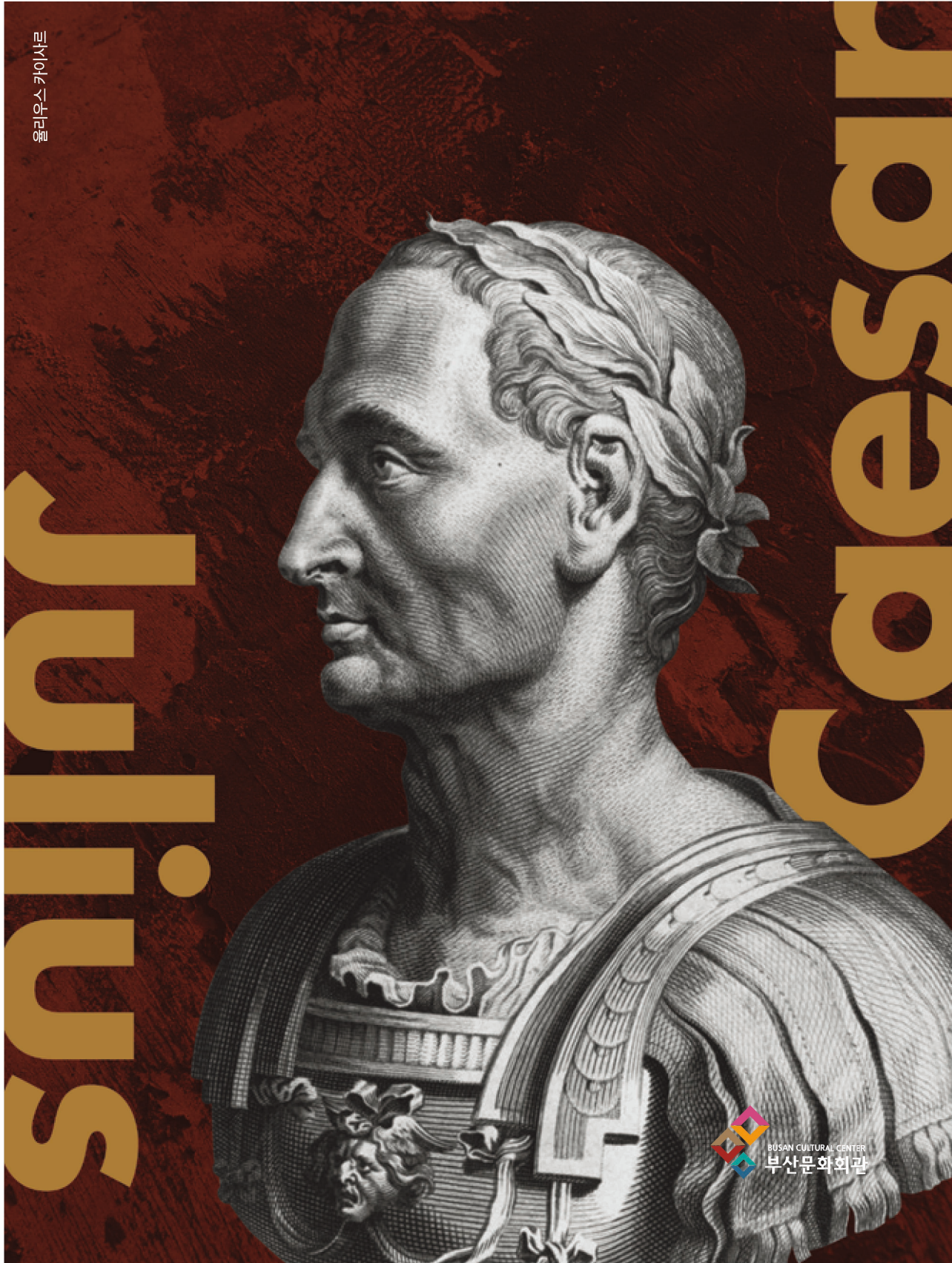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33

# 09

- 커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올리우스 카이사르’
- 오페라 연출가 이익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양치기 연출가 이야기
- 유령 박물관 기행  
아름답고 슬픈 여인이 있는 그곳  
로마 바르베리니 국립고전회화관

올리우스 카이사르



# 2019년 부산 도슨트과정 1기 회원모집



부산도슨트협회

비영리단체 부산도슨트협회(since2019)B.D.A 도슨트 교육을 안내합니다.  
협회등록번호: 602-82-70\*\*\*



## 1기 기초반 교육 프로그램

2019. 9. 23(월)  
~ 12. 10(화)

### 총 12회 과정+현장체험

**교육목적** 21세기 문화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미술, 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가교 역할과 미술관, 갤러리, 각종 아트페어에 작품해설 및 안내를 하여 대중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접근을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가와 관람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과 도슨트협회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모집장소** 갤러리 아라, 갤러리 위즈아츠스페이스, 기장대로 563 현대 A동 상가 2층

**수강료** 35만원 (총12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788953 부산도슨트협회

**문의** 부회장 박덕남  
010-6207-0767

1강	9/23 (월)	개강식(가을학기 과정) 현대인이 모르는 현대미술 도슨트의 미래 비전 제시	한명희 김인에	회장(계명대외래교수) 서울도슨트협회부회장
2강	10/2 (수)	미학적 인간 예술적 삶 (피카소는 왜 그렇게 유명한가?)	윤혁길	전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3강	10/9 (수)	스토리로 만나는 현대미술사	이유상	디자인학박사 미술평론가
4강	10/16 (수)	위대한 멘토 괴테를 만나다	안장혁	동의대학교수
5강	10/23 (수)	세계 유명 미술관 순례	천년화	부산사범대졸 전 미술교사
6강	10/30 (수)	아름다움을 비추는 두 거울 (동서 미학 비교)	윤혁길	전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7강	11/6 (수)	예술로의 사진의 시작과 변화	최용부	전 KNN 서울본부장 전부산영어방송본부장
8강	11/13 (수)	남북교류는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박채서	(주)이루리커뮤니케이션 대표
9강	11/20 (수)	갈매기 날개 위에 기장 문화를 달다	황 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10강	11/27 (수)	음악, 미술과 건강	김민석	동남원자력의학원 센터장
11강	12/4 (수)	미의 3대 요소	임봉규	전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12강	12/10 (화)	종합강평 및 와인 강의와 파티	한명희 와인강사	회장, 갤러리위즈아츠 대표

현장 체험 : 블루아트페어(시타딘호텔) 현장탐방, 시립미술관탐방 등(갤러리아라 박덕남 대표)

※ 수요일 저녁 6시30분 ~ 8시30분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은 기초반, 심화반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2020년 상반기 정기대관 안내

## 대상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부산시민회관 : 극장(소), 전시실 1, 2  
※ 대극장은 6월부터 공사 예정으로 대관 불가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6개월)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대관공지사항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9월 2일(월) 09:00 ~ 2019년 9월 20일(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전자우편 접수(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 온라인 : www.bscc.or.kr/rental  
※2020년도 상반기 정기대관은 온라인 접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 부산문화회관 : 극장 rent@bscc.or.kr / 전시실 gjh1834@bscc.or.kr  
- 부산시민회관 : bch@bscc.or.kr
- 결과회신 : 10월 초(예정) ※ 재단 사정에 의해 공고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심의 우선기준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온라인, 전자우편 접수 동일하게 적용)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 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3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 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전(대극장은 60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70%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별도 부과

## 문의

- 부산문화회관(대관담당) : 극장 051-607-6058 / 전시실 051-607-6063
- 부산시민회관(대관담당) : 극장 051-630-5234 / 전시실 1, 2 051-630-5232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주최

# 제28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The 28th GloVil National Music Competition

대한민국 음악인재의 등용문

10.3 / 10.5 / 10.9

**대회일** 2019. 10. 3(목) 피아노 / 작곡      **접수기간** 8. 15(목)~9. 30(월)  
2019. 10. 5(토) 현악 / 실내악 / 국악      8. 15(목)~10. 2(수)  
2019. 10. 9(수) 관악 / 성악 / 중창      8. 15(목)~10. 5(토)

**장소** 글로벌아트홀

**부분** 피아노 / 성악 / 현악 / 관악 / 작곡 / 국악 / 중창 / 실내악

**대상** 유 / 초 / 중 / 고 / 대 / 일반전공 / 일반비전공

**접수처**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il.org)  
또는 콘테스트 홈페이지(www.contest.co.kr)

**일정표** 대회 상세일정표는 각 부문 접수마감 후  
다음날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il.org)에 공지

**과제곡** 전 부문 자유곡 1곡 또는 2곡  
작곡 과제곡  
중등부 : 주어진 동기에 두도막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고등부 : 주어진 동기에 세도막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대학일반부 : 실내악작품 5부 제출(음원 및 악보 제출, 해설첨부, 기법과 형식은 자유)

**참가비** 국민은행 99776600054 글로벌아트홀  
개인 1곡 10만원(유초등부 8만원), 개인 2곡 15만원/중창팀 및 실내악팀 1인당 5만원  
(참가자 또는 참가팀 이름으로 입금하고 참가비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음)

**시상** 전체대상(부산광역시장상), 특별상(동래구청장상)  
부문별 최우수상(글로벌아트홀예술총감독상)  
부문별 1등상 2등상 3등상 장려상(글로벌아트홀예술총감독상)

**심사기준** 각 부문별 및 각 학년별 절대평가로 채점  
수상자 특전 및 지도자 특혜(홈페이지 또는 전단 이면지 참조)  
시상식 : 2019년 10월 26일(토) 16시 30분  
축하음악회(최우수상 수상자) : 2019년 10월 26일(토) 17시(녹음 : 14시, 실황녹화 : 17시)  
신예음악회(1등~3등 수상자) : 2019년 11월 2일(토) 16시(실황녹화)

※ 콩쿨과 관련된 모든 공지는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 주최 |  GloVil Art Hall | 주관 | 글로벌예술원 | 후원 |  부산광역시  영성동래 | 협찬 |  seagullcoms  JOSEPH X STACEY

글로벌아트홀 T. 051-505-5995 / F. 051-505-5935 / E-Mail, glovil@hanmail.net  
478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운천3동)

 glovilarthall

## 입시평가회 및 무대리허설

- | 참가대상 | 전국 예중 예고 음대입시생 대학원준비생
- | 평가교수 | 심사 및 평가교수진은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 참조(매회 심사위원 변경)
- | 평가방법 | 입시평가회는 실전과 같이 진행하며 원포인트레슨과 평가서 제공
- | 일 시 | 2019. 8. 31~2020. 1. 11 매주 토요일(부문 및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참조)
- | 접 수 | 매 차시 일주일 전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glovil.org)에 신청





*From Richard Wagner, from Verdi,  
Hofmann Bachofen, from the  
Ferdinand  
Gustav Mahler*

# 말러, 비극적인 삶의 긍정

*Gustav Mahler : Symphony No. 6 in A minor*



예술감독 김용영



지휘자 박신현



부산포일합주오케스트라(BRPO) 대표 김달백

2019.9.27.(금) 20: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을숙도문화회관 부산포일합주오케스트라(BRPO) 예매 INTERPARK 1544-1555 티켓 전석 1만원 (사전 예매시 30%할인) 관람연령 만7세 이상 공연문의 051.220.5812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인국문화예술위원회,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무대감독 이순재, 조명감독 박병주, 음향감독 서종철

[을숙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화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동아시아 문화의 숲

Forest of East Asian Culture

2019. 9.21<sup>토</sup> ▶ 9.22<sup>일</sup> 2일간

부산시민공원 국제아트센터  
잔디광장

주요공연 안내

9.21 <sup>토</sup> 18시	연 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베토벤 피아노3중 협주곡 中 1악장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등	지 휘 최수열
9.22 <sup>일</sup> 17시	연 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프로그램 이호협주곡, 봄의 바다 등	지 휘 김정수

체험프로그램 안내

9.21 <sup>토</sup> ~22 <sup>일</sup> 13~18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전통놀이</li> <li>• 전통 활체험</li> <li>• 전통 에코백 체험</li> <li>• 화해장(전통꽃신)</li> <li>• 전통의상 체험</li> <li>• 메이크업 체험</li> <li>• 다도체험</li> </ul>
--	--

※공연 관람시에는 돗자리를 준비해 주세요.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 9 2019 September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2019년 9월호 통권 333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성두란, 성동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마케팅팀장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8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8 COLUMN  
섬

10 SCHEDULE  
9월 공연캘린더

12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율리우스 카이사르'

16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② 한밤

18 BACKSTAGE OPERA  
양치기 연출가 이야기

20 MUSEUM OF EUROPE  
아름답고 슬픈 여인이 있는 그곳  
로마 바르베리니 국립고전회화관

27 PREVIEW

36 ISSUE  
2019 부산 오페라 WEEK  
2019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  
2019 바다미술제

42 REVIEW

48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62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⑦

64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65 NEW BOOK  
새로 나온 책



## 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본지 편집위원 **권은영**

해질녘 모든 사물이 붉게 물들고, 저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그림자가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바로 그 ‘늑대와 개의 시간’, 나의 발걸음은 종종 나의 ‘섬’으로 향한다.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저런 빈곤한 이유를 들어 저녁 모임을 피해왔었는데 최근 들어 보다 진솔하게 거절하는 대담함이 생겼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나의 개인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눈이 둥그레진다. 살짝 장난기가 발동해서 좀 더 나간다. “집 사람들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성향도 가지각색이라 같이 놀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저의 집 남자들은 같이 살수록 매력 있어서 지겹지가 않아요. 참, 최근에 사귀고 있는 남자가 둘 있는데 한 사람은 뇌 과학자구요, 한 사람은 명상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이 뭘 말을 하는 건지 한참을 생각해야 돼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같이 살다보면 정도 듣고 쉬워지겠조 뭐.



어이쿠, 이제 가봐야 해요. 우리 집 사람들 눈 빠지겠네.” 하하하! 그 ‘집 사람들’ 중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반이다. 내가 사랑해마지 않는 소로우는 첫 만남 때 나보다 스무살 많은 아저씨였는데 지금은 6살 연하의 연인이 되어 버렸다.

나의 ‘섬’, 중력으로부터 해방된 공간,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꿈의 세계,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나에게 너무나 각별하다. 언어로 인해 인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언어의 한계만큼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언어는 이율배반적인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 사람들’은 언어 속에 같은 세상을 어떻게든 언어로 드러내 보이려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비수처럼 날카롭고, 명석하고, 주옥 같이 아름다운 글들을 보면 도저히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연인이자 스승인 이들은 나의 섬에서 꿈만 꾸라고 하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지금 오늘을 똑바로 보고 내일을 희망하라고 말한다. 이들의 통찰력은 경이롭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어쩌면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을 지적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책에는 오이를 뿌리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써어 있었다. 나는 무엇을 뿌렸지?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어. 어른을 따라서 걸어온 것뿐이야. 그런데도 내 바구니에는 벌써 쓴 오이만 가득해. 너 무 무거워서 들 수조차 없어. 모두 어른들이 심은 건데... 이것을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란 무엇이지? 본적도 없고 사귀어 본

일도 없어. 그런데도 갑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거야. 마치 내가 역사에 대해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이걸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거야?”

다이허우잉의 <사람아 아, 사람아>에서 어린 한한이 말하는 어른들을 향한 독백이다. 한한의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진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그들의 광주리 안에 담겨진 우리 세대가 남긴 작물을 보고 뭐라고 할까? 아니 그 작물들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건 미세먼지, 이건 미세플라스틱, 이건 썩은 물, 이건 뜨거워진 지구, 이건 우울증, 그리고... 요건 인공지능이네!”(할~)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테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이 두 역작을 정리하면서 인류에게 전하는 간곡한 메시지를 담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는 앞서 펼쳤던 어마어마한 통찰들이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회귀하는 듯한데 특히 주목되는 것이 마지막 21번째 제언인 ‘명상’이다. 수양, 수행과 같은 맥락인 명상이 일상이던 시대가 이미 우리 역사에 있지 않았던가? 그것이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되고 분석되고 체계화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비전까지 제시되면서 우리에게 역수입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억울한 감은 있지만 그 제언에는 지극히 공감하므로 반감은 없다. 다만 언어의 한계를 이유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전통적 태도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여하간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여름방학 내내 뇌 과학과 명상을 엮어 이해해보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런 분야의 연구가 이미 되고 있어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으나 성에 차지 않아 명상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한동안 열이 올라 있었다. 태풍의 영향 때문인지 바람이 유난히 불어대던 여름 끝자락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산책을 하며 멍하게 걷고 있는데 아름드리 느티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로르카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신의 눈빛’이고 ‘완전한 열정’이었다. 비상한 집중의 상태에서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모든 것과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그토록 열을 올리며 찾던 스승이 나의 섬에서 이토록 가까운, 이토록 끔찍하게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다.



# 9

2019 SEPTEMBER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부산문화회관**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야**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부산시민회관**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전** 전시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b>1</b></p> <p>콘브리오 제13회 정기연주회 19:00 <b>대</b> 무료/콘브리오(010-6714-3336)</p> <p>해금-아쟁 연주단 해아연 2019 정기연주회 17:00 <b>중</b> 초대/해아연(010-8991-4148)</p> <p>청춘가악에 獻하다 15:00 <b> 챔</b> 초대/청춘가악(010-4767-4718)</p> <p><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 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b>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b>2</b></p>	<p><b>3</b></p> <p>부산가야금연주단 제15회 정기연주회 19:30 <b>대</b> 3만원-1만원/부산가야금연주단(010-3260-3256)</p> <p>특별한 아이와 별난 아빠 14:00 <b>중</b> 부산광역시교육청(860-0332)</p> <p>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22회 정기연주회 19:30 <b> 챔</b> 2만원-1만원/예술기획(010-4909-7444)</p> <p><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b>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뮤직토크쇼 15:00 <b>소</b> 무료/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242-2575)</p>
<p><b>8</b></p> <p>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17:00 <b>중</b> 초대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010-8515-9181)</p> <p><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 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b>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b>9</b></p> <p>제49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b>대</b> 3만원-2만원-1만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b>10</b></p> <p>Azamara Evening Event 20:00 <b>중</b> 아주인센터티브(010-9322-2326)</p>
<p><b>15</b></p>	<p><b>16</b></p>	<p><b>17</b></p> <p>제18회 부산재가노인복지대회 14:00 <b>대</b>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산지회 (508-1007)</p>
<p><b>22</b></p> <p><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올리우스 카이사르' 16:00</b> <b>중</b>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영아티스트 콘서트 16:00 <b> 챔</b> 최미정(010-6401-8846)</p>	<p><b>23</b></p> <p>부산국악작곡가회 제18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소리여행' 19:30 <b>중</b> 초대/부산국악작곡가회(510-1739)</p> <p>박민선 피아노 독주회 19:30 <b> 챔</b> 초대/박민선(010-5516-8231)</p>	<p><b>24</b></p> <p>17번째 오동주의 스토리 콘서트 '시간' 19:30 <b>중</b> 초대/오동주(010-4556-5058)</p>
<p><b>29</b></p> <p>부산발레시어터 제6회 정기공연 '신데렐라' 18:00 <b>대</b> 3만원-2만원/부산발레시어터(513-7779)</p> <p>이일세 첼로 리사이틀 'Beethoven II' 17:00 <b> 챔</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30</b></p> <p><b> (재)2019 부산 오페라WEEK_부산캄머오페라단 오페라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19:30</b> <b>대</b>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4회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19:30 <b> 챔</b> 전석 1만원/최대우(010-2869-6780)</p>	<p><b>31</b></p>



WED THU FRI SAT

<p><b>4</b></p> <p>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Sweet September' 19:30  <b>첼</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 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b>5</b></p> <p>무지카비바 앙상블 제29회 정기연주회 19:30  <b>첼</b> 전석 2만원/워너스기획(02-521-821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 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b>6</b></p> <p>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 19:30  <b>대</b>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          블루밍 트리오 연주회 19:30  <b>첼</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 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거침없이 얼씨구!' 19:30  <b>스</b>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7</b></p> <p>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I' 17:00  <b>대</b>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15:00  <b>중</b>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 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	--	---	--

<p><b>11</b></p>	<p><b>12</b></p>	<p><b>13</b></p>	<p><b>14</b></p>
------------------	------------------	------------------	------------------


<p><b>18</b></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75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b>대</b> 전석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뮤지컬 인형극 '채소를 골고루 먹어요' 10:30  <b>대</b>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010-2955-938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올리우스 카이사르' 19:30  <b>중</b>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이환석 클라리넷 독주회 19:30  <b>첼</b> 2만원·1만원/이환석(010-6284-6357)</p>	<p>창단 25주년 기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1회 정기연주회 '축제' 19:30  <b>대</b>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올리우스 카이사르' 19:30  <b>중</b>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박나래 귀국 리사이틀 19:30  <b>첼</b> 전석 1만원/박나래(010-4112-4293)          2019 시민뜨락축제 12:20 (우천시 취소)  <b>아</b>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17:00  <b>대</b>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올리우스 카이사르' 16:00  <b>중</b>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바리톤 박찬 독창회 19:00  <b>첼</b> 전석 1만원/음악이 주는 선물(010-6527-0212)</p>
--	---	--	---

<p><b>25</b></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5회 청소년 협연의 밤 19:30  <b>중</b> 전석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 19:30  <b>대</b>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p>제6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9:30  <b>중</b>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독창회 19:30  <b>첼</b>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p> <p>2019년 제20회 악물 오남용 예방뮤지컬 19:00  <b>스</b> 초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462-1022)</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 '프렌치 호른' 19:30  <b>대</b>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바리톤 유용준 리사이틀 19:30  <b>중</b> 전석 2만원/유용준(010-8694-2087)          김정은 피아노 리사이틀 19:30  <b>첼</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청년경찰' 14:00  <b>스</b> 무료(15세 이상 입장가능)/(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2019 시민뜨락축제 12:20 (우천시 취소)  <b>아</b>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이왕자 이야기' 15:00  <b>중</b>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정지혜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7:00  <b>첼</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	---	--	--

**알림**

부산시민회관은 대극장 내진보강 및 개선공사로 12월까지 대극장 공연이 없습니다.

문의 부산시민회관(630-5200)



**전시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의 화가들'展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6월 8일(토)-9월 29일(일)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170  
 ※ 오전 10:30~오후 7:30(오후 6:3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 정기회원 30% 할인(본인 포함 4매까지 가능)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문화로데이 50% 할인

**부산시민회관**

부산광역시 수석인연합회 회원전  
 9월 7일(토)-9월 8일(일) 부산시민회관 제1, 2전시실  
 부산광역시 수석인연합회 사무처장 이재유(010-3868-2686)

기장장애인복지관 그룹전 '사이드'  
 9월 20일(금)-9월 30일(월) 부산시민회관 제1, 2전시실  
 기장장애인복지관(070-5180-8489, 727-308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율리우스 카이사르

**9.19<sup>목</sup> - 22<sup>일</sup>****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R석 3만원, S석 2만원(중학생 이상 입장가능)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ㄹㄹ 카이사르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ㄹㄹ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재)부산문화회관 첫 제작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신으로 추앙받던 카이사르를 살해했지만 결국 실패한 혁명이 되어버린 로마 역사의 대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플루타크 영웅전에 담겨있는 카이사르, 브루투스 이야기에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이번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의 첫 콜라보레이션으로, 재단 출범 이후 첫 자체제작 연극공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첫 연극 제작인 만큼 배우들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으며, 관객들의 작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셰익스피어의 연극읽기' 특강도 9월에 마련되어 있다.

인물 내면의 심리를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이끌어내는 김지용 예술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작품은 이 시대가 바라는 '카이사르'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이다.

### \* 패키지 할인 안내

**(☎ 051-607-6000 전화예매만 가능)**

- **연극패키지** 연극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30%
  - **자유패키지** 부산문화/시민회관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시 20%
  - **자유패키지** 부산문화/시민회관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시 30%
- ※ 패키지 할인 경우, 첫번째 공연 이후 취소/변경 불가

### \* 기타 할인

- 연극마니아 할인 10%(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예술단(극단) 연극 공연 기관람자 1인 2매에 한함)
  - 문화예술인패스 20%
  - 문화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본인)
  - 문화누리카드 20%(본인)
  - 학생할인 20%(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본인)
  -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셰익스피어 연극 읽기> 수강생 할인 50%(수강생 및 동반 1인)
  - 복지할인 50%(장애인 및 동반 1인,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 ※ 공연당일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미지참시 차액 지불





## 고민하고 고뇌하며 후회하고 절망하는

김지용 극작가/연출가,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어쩌면 로마 시민들은 지쳐있었을 런지도 모르겠다. 거듭되는 내전과 외부로부터의 위협, 그 시대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다른 이들을 삼키는 것쯤 대수롭지 않은, 약육강식이 진리로 통하던 시기였다. 거듭되는 전쟁은 극심한 계층 이동을 발생시키고, 더불어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한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강력한 지도자가 천하통일을 이루어 분열과 혼돈을 정리하고, 평화로운 세상, 안정된 시대를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즈음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 역사의 필연이 아니었을까?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카이사르 개인의 야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의지에 동조하는 대다수가 없다면 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에 카이사르는 황제와 다름없는 종신 독재관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정말 한 발자국만, 딱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황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실현 바로 직전에 암살당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 좌절의 시점을 무대로 소환한 연극이다. 강력한 독재자 ‘카이사르’의 암살을 은밀하게 계획하는 무리들이 등장한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주축으로 한 그들은, 독재자 ‘카이사르’가 공화정이 내세우는 민주정신을 훼손한다고 믿는 회고주의자들이다. 결국 암살은 성공하게 되지만 역사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카이사르’의 제1상속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삼두정치를 거친 후 종내는 자신의 정적인 공화파를 모두 숙청하고서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

가 되어 로마의 초대황제로 등극해 제정 로마 시대를 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끌어다 썼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황제 자리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했고, ‘브루투스’ 무리들을 영웅적으로 그리고 있다. 워낙 대작가의 작품이라 보통의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진짜 역사라고 착각하기 쉽다. 유명한 대사 “브루투스, 너마저도!”는 실제 역사에는 없는 셰익스피어의 창작이다. 역사와 시대, 인물을 잘 조합하면 입체적인 상상이 가능해진다. 사실은 그게 극작가의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상력으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향하는 로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왜 그 때의 시민들이 스스로 왕에게 복종을 맹세하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극을 보다보면 이런 질문과 대면하게 된다. “공화정인가, 아니면 제정인가.” 2019년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후퇴하더라도 모두가 책임을 지는 제도가 옳다고 여긴다. 셰익스피어는 르네상스의 유산을 이어받은 작가지만, 400여년 후의 우리 인류는 대혁명과 권리장전, 마르크





## 커버스토리

스와 전 지구적인 세계대전 이후의 세대들이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까지 인권이 탄압되던 시절을 다함께 겪었고, 이후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이뤄낸 민족이라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본다면, 인류 전체에 있어, 발전과 개혁을 이끌었던 주체는 소수의 능력자들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 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다소 장황하게 글을 늘어놓았다.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쓴 이 암살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도 유효한 세상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였다. 우리의 세상에서도, 하나의 신념은 또 하나의 신념을 만나 투쟁하고 변증하고 있다. 시기와 질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옛날만큼 죽음이 삶 가까이에 있지는 않기에, 목숨을 거는 극단적인 주장은 볼 수 없지만,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SNS 안에서도, 영웅들이 있고, 만들어지고, 몰락한다.

이번 공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근간으로 삼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되었다. ‘카이사르’는 황제가 될 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을 제패한 정복자답게 현실과 이상을 잘 구분하고, 이후 세대의 육성 과 시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힘을 쏟는, 로마에 헌신하는 지도자로 그려 내었다. 그래서 ‘브루투스’는 걱정하고 계획적으로 카이사르 암살에 임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카이사르를 찌르게 되었다. ‘브루투스’와 ‘카이사르’ 사이를 훨씬 더 돈독하고 신뢰하는 사이로 그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민하고 고뇌하며 후회하고 절망하는 브루투스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브루투스’에게 훨씬 더 많은 인간적인 고통을 부여하고 싶었다. ‘클레오파트라’를 등장시킨 것은 ‘안토니우스’의 망설임을 시각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둘의 정서는 셰익스피어가 이후에 적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많은 부분 차입하였다.

이번 연극에서도,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도, 실제 역사에서도 최종적인 승리자는 ‘옥타비아누스’다. 이런 저런 이유

가 붙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가 ‘카이사르’의 제1상속자이며, 공식후계자라는 명분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즉, 대중의 지지를 획득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대중의 의지로, 대중을 지배하는 황제에 오르게 되는 일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다. 하긴 그만큼 ‘카이사르’의 그림자는 거대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이번 <율리우스 카이사르>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의 기획공연으로는 최초로 자체제작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역할들은 오디션을 통해 부산의 젊은 배우들로 채워졌다. 무대, 음악, 조명 등 각 부문의 스태프 역시 거의 대부분이 부산의 인력들이다. 싹튼 좋은 이번 공연은 부산에서 제작되는 연극 수준의 바로미터가 될 듯 싶다. 물론 부산의 연극은 그 종류와 층위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결코 단 한 편의 작업으로 측정되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업에 거는 기대가 큰 까닭은 제법 튼튼한 제작비, 스무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으로서는 규모가 큰 공연, 부산문화회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역 예술가와의 소통이라는 슬로건이 걸려있어서일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날짜가 8월 18일로 공연이 꼭 한 달 남은 시점이다. 아직은 공연을 조립하고 있는 단계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무대의 범위를 확장하는 극장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를 근거로 하지만, 재구성을 통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들려주는 이야기라, 사건의 개연성과 인물 행동의 당위성의 확립, 서브텍스트의 구축에도 애를 쏟고 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 땀을 쏟고 있는 스무 명 배우들의 열정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구성·연출 | 김지용

# 율리우스 카이사르

Gaius Julius Caesar

2019

9. 19(목) ~ 22(일)

목·금 7:30pm / 토·일 4: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구성·연출 | 김지용 음악감독 | 전현미 무대디자인 | 황지선 무대제작 | 진승휘 조명디자인 | 조세현  
의상디자인 | 박선미 분장 | 공혜경 조연출 | 이현우 진행 | 배정희, 박지현  
출연 | 유상률 엄준필 윤준기 박현형 안예은 이동현 장현준 강범수 박 현 박규한 박 센 이재찬 이태성 차승현 한승현  
김승완 남진수 박향실 최하나 이승환

## 詩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

## 내 옆구리 내가 치다

개구리는 용하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개구리  
 옆구리 붙이고 다니면서  
 옆 개구리 옆구리 쿡쿡 쑤셔  
 행동 같이하자고 신호를 보내는지  
 울면 한꺼번에 울고  
 그치면 한꺼번에 그친다  
 옆구리 쑤셔도 한 마리쯤 두 마리쯤  
 울음이 똑 그쳐지지 않아  
 끼이끼이 계속 울어댈 만도 한데  
 숨이 막힐 정도로 쑤시는지  
 똑 그치지 않는 개구리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없다  
 남 다 자는 한밤  
 누가 옆구리 찌르는지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난다  
 나야 할 때 나지 않던 눈물이  
 나야 할 때가 아닌데 난다  
 진정이 되지 않아  
 내 옆구리 내가 치는 밤

동길산 詩 ‘한밤’



66

## 가을이 오기 전인데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떨어진 사람

99

저놈의 개구리. 또 운다. 온 산골짜기를 들었다 놓는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개구리가 들었다 놓은 산골짜기는 잠시 잠잠하다가 이내 들썩인다. 이 긴 밤을 저만 안 자면 그만이지 나까지 잠들지 못하도록 들썩신다. 잠들만 하면 들썩시고 잠들만 하면 들썩셔 나를 몇 번이고 들었다 놓는다. 저놈의 개구리.

내 집은 산골마을. 마을과 저수지 사이에 논이 있고 논물이 그득 차면 개구리가 거기서 극성을 부린다. 낮에도 울어대고 밤에도 울어대며 비라도 올라치면 더 울어댄다. 개구리 울어대는 소리에 낮잠이 깨고 개구리 울어대는 소리에 비가 오는가 보다,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걸기도 한다.

개구리는 용타. 한 놈이 울면 한꺼번에 울고 한 놈이 그치면 한꺼번에 그친다. 남 다 우는데 안우는 놈은 있는지 몰라도 남 다 그쳤는데 안그치는 놈은 없다. 원래 울음이 그렇긴 하다. 전염성이 있어 가까운 사람이 울면 함께 울게 된다. 함께 울면서 눈물은 나누어지고 슬픔도 나누어진다.

그리고 보면 나는 참 독하다. 가까운 사람이 운다고 함께 운 기억이 별로 없다. 마음으로는 왜 안 울었겠냐만 함께 부둥켜안고서 눈물을 나누고 슬픔을 나눈 기억은 도통 없다. 눈물은 귀한 것.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다. 귀하니까 참아야 한다고만 알았지 함께 나누면 더 귀해진다는 걸 몰랐다.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가을이 오기 전인데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떨어진 사람을 생각하며 가끔가끔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유 없는 눈물은 없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아서 나는 눈물이고 가까운 사람이 외롭고 아플 때 나누지 않아서 나는 눈물이라.

개구리는 여전히 운다. 여전히 한꺼번에 울다가 한꺼번에 그친다. 내 눈물도 한꺼번에 그치면 좋으련만 질질 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아서 받는 벌이고 가까운 사람이 외롭고 아플 때 나누지 않아서 받는 벌이라. 나를 울리고선 한꺼번에 똑 그친 저놈의 개구리.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 나랑 공연 하러 부산 가서 회 한 접시 하고 바다 보며... 양치기 연출가 이야기

글·사진 이의주 오페라 연출가

8월 14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 25주년 기념 프로젝트 이의주의 토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사랑의 묘약’ 공연을 두차례에 걸쳐 성황리에 마친 나는 무대 SM 데스크 옆에서 커튼콜을 마치고 나오는 가수들을 두 손 벌려 맞고 있었는데 테너 이재욱과 바리톤 송기창이 나오자마자 나에게 두주먹을 겨누며 이렇게 말했다. “이의주 연출가에게 완전히 속았어! 이걸 완전 극한 직업이었어!”

지난 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독자가 읽고 있는 <예술에의 초대>를 발행하는 이 부산문화회관에서 드디어 나는 오페라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공연은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오페라 길라잡이 성격의 공연으로, 오페라 자체

토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사랑의 묘약’



를 처음 접할 수 있는 관객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고 싶었다. 처음 경험이 평생 오페라 공연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대 렌탈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이윤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식 오페라에 쓰이는 무대세트 물량을 서울에서 다 공수해와 공연을 하기로 했다. 한 작품만 각각 1시간, 총 2시간의 공연에 실제 오페라 풀 세트에 비견될 정도로 무대를 꾸미고, 배경 작화 막은 각 작품마다 2개의 큰 그림, 총 4장의 작화 막을 가져왔고, 수많은 가구와 대소도구들, 그리고 소품 등은 실제 공연을 방해케 하는 물량이었다.

다시 한 번 제작진들의 노고와 아울러 부산문화회관 극장 스태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이 공연의 총괄 CP인 백경옥 서양음악팀장은 것처럼 일당백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맙고 또 고맙다. 게다가 부산문화회관 사상 최초로 공연 무대를 직각 삼각형 형태로 한쪽은 오케스트라, 무대 한쪽은 블랙바닥의 오페라 무대로 변신을 시키고 두 공간이 이질감이 없이 하나로 조화롭게 만드는 구조를 구현했다. 물론 프로시니엄 앞부분 돌출무대 역시 블랙 바닥으로 마감을 해서 조명이 들어오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공연 전부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문화면에 대문짝만하게 톱기사로 나오고, 앞으로 오페라의 도시가 될 부산은 이 공연에 대한 관심으로 엄청나게 뜨거웠다. 특히 오디션을 통해 새로 선발된 부산 출신의 성악가들의 출사표가 더 그러했다. 그 뜨거운 관심은 예상대로 열광적인 반응으로 화답하였고, 공연이 끝난 후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에게 인사 하러 나간 나에게 2번의 공연은 아쉽다며 이런 공연은 장기 공연을 해도 괜찮았을 거라고 너무나 좋았다고 덕담을 해주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새로운 경험에 즐거워했고, 특히 이명근 지휘자는 바로크 시대의 의상과 분장으로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말 공연을 하면서 아주 간만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나는 테너 이재욱과 바리톤 송기창에게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두 작품의 큰 축을 담당하는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와 제르몽, ‘사랑의 묘약’의 네모리노와 벨코레 역할은 한국

최정상급의 가수들이 꼭 함께 해야 여러가지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들에게 신나게 놀며 일하자고 부산으로 불러들었는데 내가 너무나 혹사시킨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20여년을 한국 성악계에서 큰 축의 역할들을 해낸 베테랑이기에 다른 캐스트들이 경험이 없어도 그들을 충분히 이끌며 더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다. 그래서 처음 그들에게 섭외 전화를 할 때 “두 분이 꼭 와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부산에 여름휴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준비기간 동안은 제가 맛있는 회와 좋은 음식으로 모실게요”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에게 단 1분의 쉬는 시간도 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오디션을 통해 뽑힌 신인 캐스트들은 한 작품만 하면 되는데, 합창단이 없는 구성이었기에 사실상 두 작품의 거의 모든 장면에서 등장해서 노래해야 하는 그들은 공연 며칠 전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오후부터 이른 저녁까지 나와 액팅 연습을 하며 가수들과 합을 맞춰야 했고, 저녁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오케스트라와 음악 연습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구장창 계속 리허설, 리허설, 그리고 공연이었던 것이다. 공연 당일도 오전부터 분장을 하고, 공연 시작 전 연출자가 관객들과 백 스테이지 투어를 하기에 쉬고 있는 분장실에 들어가 주역 캐스트들의 근황을 보여주고, 오후 3시30분 시작하여 5시30분 전후 공연 끝나자마자 로비로 나가 팬 미팅을 하고, 다시 들어와 분장 고치고, 간단 식사하고 쉬다가 6시30분경 다시 백스테이지 투어 관객들을 맞고, 7시30분 다시 공연하고 9시30분 끝나면 또 나가 팬 미팅……. 스케줄 빡빡한 것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적어보니 내가 조금 심하게 하긴 한 것 같다.

나는 바리톤 송기창과는 1993년부터 학교 선배로 알았으니 27년차, 테너 이재욱과는 2001년 이탈리아 밀라노 유학 시절부터 교류를 했으니 19년차 지인이다. 또 신기하게도 그들과는 2005년 5월 국립오페라단 브띠 시리즈에서 ‘사랑의 묘약’으로 나의 귀국 첫 오페라 데뷔할 때 같이 첫 공연을 한 멤버들이다. 무려 15년간 함께 수많은 무대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늘 변함없는 그들이었기에 언제나 믿고 그들과 작업을 하였지만 이번처럼 엄청난 스케줄은 처음인 것



같다. 무대 뒤에서 내게 웃음 띤 주먹을 날리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정말 가깝다는, 그 세월의 관계가 느껴지기도 했다. 사실 두 분은 매우 심성이 곧고 인품이 뛰어난 성악가들이라 난 둘을 보면서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지냈다. 이런 나의 미안한 마음이 무색하게 그 둘은 내게 “이번 공연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잘 챙겨주시는 CP 백팀장님 덕분에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편안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이어서 너무나 보람된 시간이었기에, 우리에게도 뜻깊은 공연으로 기억될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고맙고 또 고마웠다. 그 몽클함과 심쿵함이 나를 계속 강력한 무대의 열정을 품게 하는 것 같다.

다음 달인 10월, 나는 오페라 ‘리콜레토’로 다시금 부산 입항의 출항을 준비한다. 9월 중순 이후부터 부산에서 거주하며 전 세계 최정상급이자 대한민국 바리톤의 아이콘 고성현, 그야말로 질다의 히로인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이재욱, 또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베이스 김요한 등 성악계 어벤져스와 부산을 이끌어가는 성악가와 지휘자 강석희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에 안무로는 신라대학교 이태상 교수, 그리고 무대, 의상, 조명, 분장, 영상 등 각 분야의 최고의 디자이너와 제작진들로 무대를 만들게 된다. 그때는 여름이 지났으니 이재욱씨에게 맛있는 회와 대선소주 한잔으로 이날의 추억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할 것이다. 또 다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으니까.



# MUSEUM OF EUROPE

유럽 박물관 기행



아름답고 슬픈 여인이 있는 그곳

## 로마 바르베리니 국립고전회화관

글·사진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 1 로마 산탄젤로 다리
- 2 베아트리체 첸지의 초상화(귀도 레니 작)
- 3 바르베리니 국립고전회화관 전경

### 영화 김복동

친구의 추천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을 보았다. 우리가 잘 아는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운동가로,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이후 전 세계 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해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하시다가 2019년 1월 28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신 분이다. 다큐멘터리 영화답게 영화감독은 담담한 시선으로 할머니의 일생을 보여주었는데, 영화를 보다보니 같은 나라에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그분들의 활동이나 삶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화해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순간 폭력이 된다는 영화 속 대사도 오래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았다.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의 여성초상화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귀족가문 출신인데 당시 일반인들에 비하면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로마 바르베리니 국립고전회화관에 가면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날 수 있다.

### 바르베리니 가문과 회화관

17세기 로마의 귀족 가문이었던 바르베리니 가문은 원래 피렌체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바르베리노 발 델사(Barberino Val D'Elsa)라는 작은 도시에서 11세기에 만들어졌다. 이후 이 가문의 두 형제 카를로(Carlo Barberini, 1488-1566)와 안토니오(Antonio Barberini, 1494-1559)는 곡물과 섬유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으게 된다. 하지만 1530년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고 피렌체 공화국 설립에 참여했던 이들은 다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로 복귀하자 1537년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이주하게 된다. 로마에서 바르베리니 가문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정부 관료와 가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후원했고 결국 바르베리니 가문의 마페오 바르베리니(Maffeo Barberini 1568~1644) 추기경이 1623년 교황 우르바노 8세(Urbano VIII)로 등극하며 가문의 권세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현재 회화관으로 사용되는 이 궁전은 우르바노 8세의 명령으로 1633년에 완공되었는데 원래 이곳은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이 1549년에 완성시켰던 르네상스식 건물이었다. 그 건물을 기초로 바로크식 궁전으로 증, 개축했다고 한다. 1627년 교황은 당시 바티칸 대성당의 건축을 맡았던 카를로 마테르노(Carlo Maderno, 1556~1629)에게 건축을 맡겼는데 2년 후 그가 사망하자 이후 프란체스코 보로미니(Francesco Borromini, 1599~1667), 잔 로렌초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 1598~1680)와 같은 젊은 천재 예술가들이 건축을 마무리한다. 바르베리니 가문의 후손들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이 건물과 가문의 예술품들은 현재 이탈리아 정부에서 국립고전회화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단체 방문객이 거의 없고 로마 중앙역과 스페인광장, 트레비 분수와 같은 관광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유 여행자들에게 추천하는 로마의 대표적인 회화관이다.

슬픈 미소의 그녀

회화관에는 다양한 초상화들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권위 있는 표정이나 밝은 표정인데, 바로크 시대의 화가 귀도 레

니(Guido Reni, 1575~1642)가 그린 여성은 표정이 무척이나 오묘하다. 매우 아름다운 여성인데 특별히 그녀의 눈빛은 아름답다 못해 슬픈 느낌까지 느껴진다. 그녀의 이름은 베아트리지 첸치(Beatrice Cenci, 1577~1599)이다. 첸치 가문은 로마의 유력 가문이었고 베아트리지체의 아버지 프란체스코는 로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사별한 베아트리지체는 아버지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렸는데, 결국 그 폭력은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 때 그녀의 나이는 십대 중반이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동안 끔찍한 가정폭력이 지속되자 베아트리지체는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계모와 친오빠, 가문의 하인들과 함께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결국 사고를 가장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다.

프란체스코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자 교황청에서는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에 들어간다. 갖은 고문과 함께 조사가 지속되자 결국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베아트리지체를 비롯한 첸치 가문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평소 폭력적이며 친딸을 성폭행했던 프란체스코의 만행을 아는 시민들은 그 판결에 저항했지만 첸치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던 교황 클레멘스 8세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결국 20대 초반에 로마 테베레 강 근처에 있는 (오페라 '토스카'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던) 천사의



5



성 앞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크 시대의 화가 귀도 레니는 사형집행이 있기 전 그녀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한다. 폭력적인 아버지의 끔찍한 기억에서 해방되어서 인지 그림 속 그녀는 슬픔이라는 감정과 함께 약간의 평안함도 느껴진다. 한편 사형집행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화가 카라바조는 불합리한 판정에 분노하여 유디트 성녀의 모습을 그렸는데, 역시 바르베리니 회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작가 스탕달의 이야기로 더 유명해졌다. 그의 책 <나폴리와 피렌체-밀라노에서 레조까지의 여행>에 보면 예술 작품을 보고 큰 감동을 받는 현상인 스탕달 신드롬을 처음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가 1817년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나오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걷는 동안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성당에서 스탕달을 그토록 감동시킨 작품이 바로 귀도 레니의 베아트리지체 첸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만 널리 알려진 잘못된 정보이다. 실제 필자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공부한 바로는 스탕달이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본 작품은 초기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토의 벽화였다고 한다. 아마도 스탕달 신드롬과 베아트리지체 첸치의 그림이 연결된 건 스탕달이 실제 이 그림을 보고 (피렌체가 아닌 로마에서 보았을 확률이 높다.) <첸치 일기>라는 책을 썼기 때문이

다. 사실 1819년 영국 시인 셸리도 이 그림을 보고 비슷한 글을 썼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런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지 좀 흥미롭기도 하다.

### 현재의 베아트리지체 첸치

요즘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로 나라 안과 밖이 시끄럽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본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지만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모습이다. 정치, 성향, 세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연약한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지켜워’ ‘그만 좀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비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필자는 10년간 로마에 살면서 베아트리지체의 초상화를 종종 보았다. 예전에는 400년 전 지구 반대편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초상화로 기억되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아픈 사연이 가슴으로 기억될 것 같다. 공교롭게도 베아트리지체가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나이는 행복을 꿈꾸던 김복동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갔던 나이와 일치한다.(그녀들의 나이는 고작 14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베아트리지체와 같은 이런 슬픈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4 이탈리아 바로크의 거장 카라바조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5 화가 라파엘로의 연인, 마르케리타 루티라파엘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무척 사랑스럽다.

6 바르베리니 국립고전회화관 내부

# 10.11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가을 여행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오롯이 남아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최초의 남해유배문학관과 국내 유일의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 그리고 남해의 상징 마늘을 테마로 한 보물섬 마늘나라 전시관까지 남해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행.

###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남해 도착, 이순신 순국공원 관람
- 12:00 중식
- 13:00 남해유배문학관, 마늘나라 전시관 관람
- 15:00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 관람
- 16:00 부산으로 출발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 09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김동례(금정구 금강로)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김재하(서구 감천로)  
박도연(동래구 시실로)

송만오(남구 석포로)  
윤영기(남구 유엔평화로)  
이근희(금정구 금정로)  
이재일(남구 황련산로)

장미선(금정구 옥봉로)  
최형화(금정구 금강로)

### 기존 회원

곽량교(영도구 해양로)  
권영숙(남구 못골번영로)  
김상희(서구 암남공원로)  
김옥련(부산진구 범양로)

김인숙(연제구 범원북로)  
남영숙(금정구 벽구산로)  
류명식(수영구 광안해변로)  
박춘태(연제구 운천천남로)

윤희택(해운대구 달맞이길)  
최의숙(해운대구 센텀중앙로)



2019

# 시민 노래축제

매주 금요일 추억을  
시민회관에서



## 누구나 즐기는 축제 (무료공연)

일시 : 9월 20일(금) ~ 10월 25일(금) **매주 금요일** 12시 20분~13시  
(9월20일, 9월27일, 10월 4일, 10월11일, 10월18일, 10월25일)

장소 :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주최 · 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울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조선의 아이들, 이희문컴퍼니의 경기소리프로젝트 거침없이 열씨구!


최근 TV프로그램인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가수 오방신으로 출연하여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선의 아이들’ 이희문이 이끄는 이희문컴퍼니의 경기소리 프로젝트 ‘거침없이 열씨구!’가 9월 6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한국인 최초로 지난 2017년 미국의 공영 라디오방송인 NPR의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민요 록밴드 ‘쌍쌍(Ssing Ssing)’의 리드보컬로, 해외에서 공연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튜브 조회수 100만명을 넘기면서 ‘조선의 아이들’이라 불리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쌍쌍’을 이끄는 소리꾼이자 연출가인 이희문은 2010 제16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4 KBS 국악대상 민요상, 2015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을 수상했으며, 그

동안 ‘희문’, ‘황제, 희문을 듣다’, ‘雜(잡)’, ‘快(쾌)’, ‘탐(貪)’, ‘깊은숨 廊사랑’ 등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성악 중에서도 미개척의 보고(寶庫)인 경서도 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시선으로 끊임없는 작업을 가져오고 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이희문컴퍼니’는 이희문 자신이 즐거운 음악과 무대를 만들고자 모인, 경기소리를 모티브로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시도하는 음악과 공연을 만드는 소리집단으로, 현재 ‘놈놈’과 ‘속씨스터즈’가 소속되어 있다.

이희문컴퍼니의 경기소리 프로젝트인 이번 ‘거침없이 열씨구!’에서는 소리꾼 이희문이 중장년 어머니들을 소리꾼으로 양성한, 일명 엄마들 그룹이라 불리는 ‘속씨스터즈’와 남자소리의 불모지인 경기소리계의 갈증 해소를 위해 경기소리를 좋아하는 남성 소리꾼 신승태, 조원석으로 결성된 ‘놈놈’, 그리고 ‘음악동인고물’이 출연, 누구나 알고 있는 ‘긴아리랑-구아리랑’, ‘한오백년-강원도아리랑’, ‘아리랑 쓰리랑’ 등 다양한 경기민요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추석을 일주일 여 앞두고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화끈한 소리와 신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과 함께 흥겨운 무대를 꾸민다. 



**일시**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Preview

1



프리뷰

Preview

2



**일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지난 1994년 초연 이후 2008년까지 15년간 공연되며  
 7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한국 뮤지컬계의 전설  
 ‘지하철 1호선’이 부산을 찾는다.

독일 그립스(GRIPS)극단의 ‘Linie 1’이 원작으로, 극단 학전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김민기가 한국적인 시각에서 새로 번안·각색한 ‘지하철 1호선’은 연변처녀 ‘선녀’의 눈을 통해 실직가장, 가출소녀, 자해 공갈범, 잡상인 등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려내며 20세기 말, IMF 시절 한국사회의 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특히 초연 당시 한국 뮤지컬 최초로 라이브 밴드를 도입하는가 하면 11명의 배우가 80개의 배역을 연기하는 1인 다역 연기, 소극장의 한계를 극복한 전동 계단식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통해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하철 1호선’은 초연 이후에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초연 버전, 대극장 버전, 팔도 사투리 버전 등 연출가 김민기 특유의 날카롭고 섬세한 연출을 통해 공연장소와 시기에 맞춰 새롭게 수정, 보완되면서 현실감과 완성도를 높여왔다. 부산에서는 1996년 초연무대 후 이듬해인 1997년에는 극단 학전의 제작지원, 김민기 연출로 부산이라는 도시의 내용과 성격에 맞춰 내용을 구성하고 오디션을 거친 부산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부산 지하철 1호선’이 제작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원작자인 극단 그립스의 폴커 루드비히가 극단 학전의 ‘지하철 1호선’을 15번 관람한 후 “전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중 가장 감명 깊게 본 공연”이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0년만에 다시 학전소극장에서 공연되어 화제가 된 ‘지하철 1호선’은 연해 매진사례를 기록하며 4개월간 1만5천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으며, 올해는 201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배우들이 2008년 마지막 버전의 작품을 선보이며, 영화, 음악, 공연계를 넘나들며 맹활약 중인 정재일이 음악감독으로 참여, 기타, 퍼커션, 베이스, 바이올린, 건반&아코디언으로 구성된 5인조 밴드가 출연한다. 


## 창단 25주년 기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1회 정기연주회

### 축제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창단 25주년 기념 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 ‘축제’를 선보인다.

지난달 창단 25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 첫 무대로 토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사랑의 묘약’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초대악장을 역임했던 이상진과 현 악장으로 있는 공귀주가 함께 출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창단 25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비롯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K.219’,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만조 작품 47’, 드보르작 ‘카니발 서곡 작품 92’,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라벨 편곡)’을 들려준다. 첫 곡인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 위트와 기지가 넘치는 관현악곡으로,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곡

이다. 이어지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K.219’는 화려한 기교와 사랑스러움으로 그의 협주곡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초대악장이었던 이상진의 연주로 들려준다. 이상진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창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현재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귀주는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유일한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공귀주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 있다.

2부에서는 연주회 서곡 3부작으로 작곡된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과 무소르그스키의 대표적인 기악곡으로 손꼽히는 ‘전람회의 그림’을 들려준다. ‘카니발 서곡’은 미국 뉴욕의 국립음악원 원장직을 수락했던 드보르작이 프라하에서의 고별 콘서트와 미국에서의 첫 콘서트를 장식했던 프로그램으로, 색채감 넘치는 카니발의 정경을 그려내고 있다. ‘전람회의 그림’은 대담하고 강건한 표현과 고난이도의 기교로 19세기 가장 독창적인 피아노 음악 중 하나로 꼽히는 곡이지만 관현악 편성으로도 자주 연주되는데, 특히 화려한 색채감을 자아내는 라벨의 편곡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일시**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Preview

3

프리뷰

Preview

4



**일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여행’을 소재로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소개하는 부산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이 9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극동방송 율학원코랄, CTS 소년소녀 합창단 프로젝트 콰이어 진임 안무 연출을 맡고 있는 김희연이 연출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 협연으로 다채로운 합창음악과 더불어 환상적인 무대와 안무를 선보인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에서는 ‘먼나라 여행’이라는 테마로 전 세계 다양한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다. 작곡가 헨델의 ‘기쁜 찬양 드리세(Make a Joyful Noise unto God)’를 시작으로 브람스 곡 ‘바다(Die Meere)’,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 올라 야일로(O. Gjeilo)의 ‘사랑이 있는 곳(Ubi Caritas)’, 미국 작곡가 거슨의 ‘Clap yo Hands(박지훈 편곡)’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의 무대로, 신명넘치는 사물놀이 무대가 펼쳐진다. 두 번째 테마인 ‘한국 여행’에서는 가을의 서정과 어울리는 이현철 곡 ‘어느 가을날의 만남’을 비롯해 ‘엄마야 누나야’, ‘날라리 아리랑’ 등 창작가곡과 동요, 민요로 다양한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부 무대를 여는 주인공은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태경)으로, 제15회 MBC 창작동요제 입상곡인 석광희의 ‘푸른세상 만들기’와 애니메이션 ‘알라딘’ 수록곡인 ‘A Whole New World’를 들려준다. 지난 2009년 6월 창단한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드림콘서트, 수영구어방축제,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세 번째 테마인 ‘환상여행’에서는 작곡가 우효원의 뮤지컬 ‘아라비안 나이트’ 중 ‘아라비안 나이트’, ‘나는야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 ‘날으는 양탄자’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연출가 김희연이 참여하여 ‘환상여행’에 걸맞는 다채로운 무대연출로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김희연은 그동안 인천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KBS 청춘합창단 등 다수 합창단 외에도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한·아세안회의 기념음악회, 임진각 타종행사 등 굵직한 행사의 기획과 연출을 맡아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여왔다. 



##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

가을의 길목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할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가 9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한 경연 두 번째 무대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명예교수이자 한국 합창음악계의 리더로 지휘자 이기선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한다. 이번 경연무대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3명의 후보자가 정기공연에 참가, 전문가 평가 및 단원 의견 수렴, 관객들의 반응조사 등을 통해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선임된다. '선이 굵고 길이 있는 음악을 만드는 지휘자'라는 평을 받는 지휘자 이기선은 총신대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한 후 도미, 줄리아드 음대 및 동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디플롬을, 애리조나 음대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고양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는

등 국내 주요 시립합창단의 지휘를 맡았으며, 현재는 올 챔버 콰이어 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자연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Opening Songs', '여성합창', '희망', '세계민요', '꿈', '우주', '남성합창', '함께하는 우리' 라는 8개의 소주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우선 '9·11사태' 희생자 추모곡으로 알려진 미국 작곡가 르네 클라우센의 'Kyrie from Memorial', 한국 전래동요 '대문놀이'를 새롭게 해석한 이견용 곡 '문을 열어라'로 무대의 막을 올리는 부산시립합창단은 노르웨이 출신의 현대음악 작곡가 올라 야일로의 '우주의 노래'를 여성합창으로 들려준다. '희망'에서는 흑인영가 'Deep River', 'Swing Low'을 통해 풍성한 합창과 소프라노 색소폰의 환상적인 선율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며, '세계민요'에서는 미국 민요 'Shenandoah', 이스라엘 민요 'Zum Gali Dance the Hora'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21세기 가장 주목 받는 미국의 젊은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에릭 휘태커의 '잠(Sleep)'과 노르웨이 출신의 현대음악 작곡가 올라 야일로의 'Luminous Night of the Soul'을 들려주는 '꿈', '우주' 무대에 이어 박지훈 편곡 '도라지꽃'을 남성합창으로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 '함께하는 우리'에서는 응원곡으로도 유명한 'You Will Never Walk Alone', '각설이 타령(진한서 편곡)'이 연주된다. 



**일시**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Preview

5

프리뷰

Preview

6



**일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 프렌치 호른

초가을의 길목에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가 9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아홉 번째 무대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중 가장 먼저 발표된 작품이자 가장 대중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교향시 ‘돈 후안’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또, 뮌헨 왕립 오페라의 호른 수석주자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주옥같은 두 곡의 호른 협주곡을 남겼던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제1번을 오슬로 필하모닉 수석 호른리스트인 김홍박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밖에도 바그너와 함께 낭만파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표제음악’이라는 새로운 관현악곡의 유형을 창시한 베를리오즈의 가장 뛰어난 관현악곡 중 한 곡인 ‘로마의 사육제’와 그의 젊은 시절, 실연의 아픔을 담은 ‘리어왕’ 서곡을 만날 수 있다.

첫 곡인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는 원래는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Benvenuto Cellini)’의 제2막 서곡이었으나 곡이 대단히 아름다워 독립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슈트라우스 ‘호른 협주곡 제1번’으로, 그의 초기 작품이지만 만년 작품의 분위기를 연상케하는 대담하고 빛나는 면모를 지닌, 슈트라우스의 재기가 충분히 엿보이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 호른 협연을 맡은 김홍박은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 서울시립교향악단 호른 부수석, 스웨덴 왕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제2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2015 차세대 젊은 예술가 12인(월간 객석), 2030 파워리더 30인(포보스 코리아)에 선정된 바 있다. 김홍박은 2017년부터 한국의 차세대연주자들로 구성된 클럽 M의 호른리스트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오슬로 필하모닉 수석,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어지는 곡은 베를리오즈의 ‘리어왕’ 서곡으로, 자신의 약혼녀인 피아니스트 카미유 모크의 변절로 느꼈던 실연의 아픔을 극적인 표현과 다양한 기교로 작품 속에 담아냈다. 마지막 곡은 이번 무대의 하이라이트인 슈트라우스 교향시 ‘돈 후안’으로, 초연 당시 대단한 반응을 얻어낸 성공작이자 자유로운 형식과 새로운 관현악법 등 그의 교향시적 특성을 나타낸 최초의 작품으로 꼽힌다. 🎨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클래식 연주와 샌드아트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가 9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19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부산, 경남지역의 젊은 클라리넷 전문 연주단체인 유니크클라리넷앙상블이 ‘더 특별한 음악, 기억에 남는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지난해 11월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초연무대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누구나 좋아하는 생텍쥐베리의 아름다운 동화 ‘어린왕자’의 이야기를 유니크클라리넷앙상블의 연주와 샌드아트, 전문 연기자의 나레이션을 통해 들려주면서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로 여행을 떠나 온 어린왕자의 설레는 여정속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2018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유니크클라리넷앙상블은 정지은, 김다솜, 오성준, 최은하 등 부산, 경남지역의 전문 클라리넷티스트들로 구성된 연주단체로, 클라리넷에 대한 열정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다.

극단 플레이돔 대표이자 배우인 장현정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유니크클라리넷앙상블과 함께 창원시립교향악단 오보에주자 조유미, 밴드 퓨클래스의 드럼주자 강병곤, 기타리스트 오현택이 연주하며, 작가 류희의 샌드아트로 무대 위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세상을 펼친다.

1부에서는 린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가요 ‘어느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예민)’로 공연의 막을 연다. ‘어린왕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2부에서는 ‘새로운 시작, 기분좋은 설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게으름의 결과, 바오밥나무’, ‘친구가 된다는 것, 서로를 길들인다는 것’, ‘나만의 장미꽃이 있는 소행성 B612호’ 등 총 다섯 테마로 나뉘어 시바여왕의 귀환(헨델), 학교가는 길(김광민), 랍소디 인 블루(거쉰), 칼의 춤(하차투리안), 바람피리(오시마 미치루), 옛사랑(이문세), 선물(멜로망스), 살다보면(차지연) 등 클래식에서부터 영화 OST,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일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프리뷰


Preview

8



**일시**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V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2019년 다섯 번째 무대가 10월 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베르디의 후계자이자 사실주의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꼽히는 푸치니. TBN 부산교통방송 손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윤지영, 테너 김준연의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토스카’, ‘나비부인’, ‘마농 레스코’, ‘투란도트’의 주요 곡을 들려준다. 지휘자 윤상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카메라타 부산을 결성,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의 시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1부 첫 무대는 사랑과 혁명을 그린 비극적 오페라 ‘토스카’로, 테

너 김준연이 ‘오묘한 조화’, ‘별은 빛나건만’, 소프라노 윤지영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이어서는 오페라 ‘나비부인’ 중 가장 유명한 아리아 ‘어떤 개인 날’을 소프라노 윤지영이, ‘잘 있오라, 행복했던 집이여’를 테너 김준연이 들려준다. 2부 첫 곡으로는 오페라 ‘마농 레스코’의 간주곡으로, 푸치니의 간주곡 중 가장 유명한 ‘르 아브르로 가는 여정’이 연주되며, 마지막 무대로는 푸치니의 유작으로도 유명한 ‘투란도트’ 중 ‘옛날 이 황궁에서’와 너무나도 유명한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소프라노 윤지영과 테너 김준연이 각각 들려준다.

소프라노 윤지영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Diploma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인 Biennio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Giovani Talenti’ 1위, ‘Porana Lirica’ 1위, ‘Luisi Stramesi’ 1위 및 ‘Gian Battista Viotti’ 특별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테너 김준연은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과와 함부르크 시립음대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 이태리 Roma Accademia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 Milano Masate G.Donizetti Accademia 합창지휘과, Norma IL Seminario 시립음악원 뮤지컬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

## NT라이브 ‘프랑켄슈타인’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이하 내셔널 시어터)의 공연 상황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NT-라이브(NT-Live)’가 오는 10월 6일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인다.

내셔널 시어터는 매년 20여 편 이상의 작품들을 제작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영국 연극의 전통과 동시대성을 이어가는 영국의 대표적인 극장이다. 내셔널 시어터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연극 공연상황을 라이브로 촬영해 다른 지역에서 상영하는 ‘NT-라이브’를 시도하였으며, 1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2,000여 개 이상의 극장에서 55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을 스크린을 통해 만나고 있다.

국립극장에 의해 처음 국내에 소개된 NT-라이브는 세계적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연극 공연을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연극 팬들의 환호

를 받아 왔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와 섬세한 표정까지 감상할 수 있는 데다, 한국어 자막을 통해 작품 이해가 쉽다는 점도 공연의 현장성을 넘어선 NT-라이브만의 미덕일 것이다.

올해 처음 NT-라이브를 시도하는 부산문화회관의 첫 상영작은 NT-라이브 최고의 흥행작이자, 연극계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프랑켄슈타인’으로 전 세계의 관객과 평단을 매료시킨 내셔널 시어터의 화제작 ‘프랑켄슈타인’이다. 영국 BBC의 화제작 ‘셜록’ 시리즈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와 미국 드라마 ‘엘리멘트리’의 조니 리 밀러(Jonny Lee Miller)가 출연해,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피조물인 괴물 역을 맡으며 숨 막히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 ‘트레인스포팅’ 등을 연출한 대니 보일(Danny Boyle)의 상상력 넘치는 무대미학과 영화적 미장센도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소설, 연극, 영화의 미학적 장치가 겹겹이 중첩되는 가운데, 19세기 메리 셸리가 원작 소설을 통해 던진 ‘과학 기술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한층 더 깊은 울림으로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다가설 것이다. 🎬



**일시** 10월 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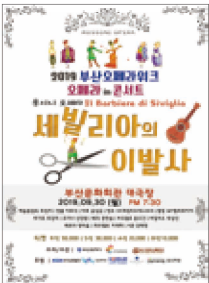
# 2019 부산 오페라 WEEK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9 부산 오페라 WEEK’ 무대가 9월 30일부터 부산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 부산 오페라 WEEK는 지난 4월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오페라 세 작품 외에도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제작한 오페라 ‘리골레토’가 무대에 올라 어느 해보다 다양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무대로 오페라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컴머오페라단 오페라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9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9년 부산 오페라 WEEK의 화려한 막을 여는 주인공은 부산컴머오페라단의 ‘오페라 in 콘서트’로, 9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젊은 연인들의 삼각관계를 경쾌하면서도 재치있게 그려낸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창단된 오페라 공연 전문 예술단체인 부산컴머오페라단은 그동안 2013 대한민국오페라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해 ‘세빌리아의 이발사’, ‘신데렐라’, ‘돈 파스칼레’ 등 20여편의 오페라를 제작, 무대에 올려왔다. 2017년 부산으로 거점을

옮긴 부산컴머오페라단은 그 해 부산 초연작인 ‘돈 파스칼레’로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총감독 최강지, 오페라 연출가 이효석의 연출,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VK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로 성악가 최강지, 신민원, 문한솔, 윤오건, 박상진, 양라운, 이태희, 강태영과 MF챔버콰이어가 출연한다. 특히 단순히 노래만 하는 오페라 인 콘서트가 아닌 성악가들의 뛰어난 연기와 오케스트라 음악, 실제 오페라를 방불케하는 무대장치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아지무스오페라단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10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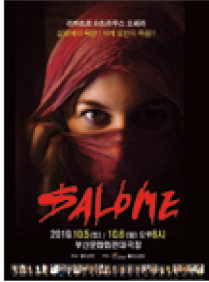


아지무스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은 10월 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03년 창단 공연 ‘돈 조반니’로 첫 발을 내딛은 아지무스오페라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통해 오페라 ‘잔니 스키키’,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코지 판 투테’, ‘박쥐’, ‘라 트라비아타’, ‘백산 안희제’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으며, 이 외에도 오페라 갈라콘서트, 송년 오페라 IN 콘서트,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작곡가 도니제티가 6주만에 완성한

전설적인 희극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갈라무대로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총감독 손욱, 연출가 허복영의 연출, 전남대학교 박인욱 교수가 지휘하는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낸 성악가로 선정된 테너 김기선을 비롯해 숙명여자대학교 박현주 교수, 동아대학교 박대용 교수, 한정현, 이주민과 동아대학교 합창단이 관객과 만난다.

### 온누리오페라단 오페라 '살로메'

10월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헤롯왕과 그의 의붓딸 살로메, 그리고 당대의 예언자 세레 요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온누리오페라단의 오페라 '살로메'가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04년 오페라의 대중화와 기독교 문화선교를 위해 창단한 온누리오페라단은 창단공연 '모세'를 시작으로 그동안 부산지역 오페라 발전과 오페라 관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페라 '살로메'는 팜파탈의 상징이던 살로메를 사랑

을 알게된 순수한 소녀로 그리는 한편, 세레 요한을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적 광신자로 설정한 대문호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곡을 붙인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도 원작의 관음적인 시선과 탐미주의를 무대미술과 영상, 춤을 통해 그대로 살려냈다. 예술감독 이홍길, 연출 김성경, 독일 지휘자 마르쿠스 후버가 지휘하는 네오피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성악가 이윤경, 윤지영, 김충희, 이광근, 안세범, 양송미, 신대현, 전하라 등이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재)부산문화회관 오페라 '리골레토'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9년 부산 오페라 WEEK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오페라 '리골레토'. 10월 11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리골레토'는 작곡가 베르디의 중기시대를 여는 걸작오페라로, 한 인간의 처절한 비극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제작하는 첫 오페라 작품으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연출가 이의주 연출, 지휘자 강석희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고성현, 김종표, 박정민(리골레토), 이재욱, 김지호, 전병호(만토바 백작), 강혜정, 박현진(질다), 김요한, 박상진(스파라푸칠레), 손혜은(막달레나), 윤오건

(몬테로네) 역을 맡아 극적인 밀도감과 함께 베르디 오페라 특유의 음악적 긴장과 조화를 선사한다, 최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자 이자 2009년 비평가

선정 성장 동력 연출가 10인에 선정된 연출가 이의주는 이탈리아 베르디 살레르노 극장 동양인 최초로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연출한 것을 비롯해 국내 오페라 연출가로는 최초로 2015년 발세시아 국제음악 콩쿠르 성악부문 심사위원, T.O.S.C.A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오페라를 비롯해 고전, 낭만,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을 소화해 내는 지휘자 강석희는 한국음악협회 이사,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2001-2006), 단국대학교 교수(2005-2013), 전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2007-2014)를 역임했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사)한국지휘자협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인공인 '리골레토' 역을 맡은 세계 최정상급의 드라마틱 바리톤 고성현은 유학 시절 이태리 푸치니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밀라노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나비부인 국제콩쿠르 1위, 독일 슈트트가르트 오페라극장 국제콩쿠르 1위(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상') 등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고성현은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영남춤의 힘, 더덩! 2019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

부산, 영남지역의 춤 활성화와 예술인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춤꾼들의 열린 무대, 2019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가 9월 25일(수)부터 한달간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펼쳐진다.

9.25<sup>수</sup> - 10.26<sup>토</sup>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예지당, 야외마당  
연악당 ||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지당 || 전석 1만원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지난 2017년 국립부산국악원 주최로 첫 선을 보인 '영남춤축제'는 예부터 춤 예술이 발달하여 '춤의 고장'이라 불리는 영남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강조한 춤 페스티벌로, 영남 춤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새기며 축하하고자 '영남춤 100인전'을 비롯해 '국·시립단체 교류 개막공연', '한민족예술인초청', '독립춤 창작춤전', '원로예술인초청 폐막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춤 축제를 이어간다.

우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은 9월 25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진다. 국립부산국악원을 비롯해 부산시립무용단, 대구시립국악단 등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국·시립단체 3개팀이 출연, 궁중에서 잡귀를 쫓기위해 베풀던 의식으로 학무(鶴舞), 연화대(蓮花臺), 처용무(處容舞)를 잇따라 공연하는 '학연화대 처용무합설'을 시작으로 회회바람(국립부산국악원), 한량무, 소고춤(부산시립무용단), 태평무, 교방살풀이춤(대구시립국악단)을 선보인다.

9월 26일부터 예지당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영남춤 100인전'이 펼쳐진다. 9월 26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중 모두 13차례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20대 젊은 춤꾼에서부터 60대 원로까지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100명의 춤꾼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만난다.

10월 5일 연악당에서는 '한민족예술인초청'으로 재일조선인무용

◎ 부산시립무용단





● 국립부산국악원

가 김유열의 세미나 ‘이역 땅에 전승된 민족의 춤’과 시연에 이어 한국 신무용의 개척자였던 전설의 무희 최승희의 동영상이 상영된다. 10월 12일 ‘독립춤꾼 창작춤전’에서는 대구 정길무용단(대표/김현태)의 ‘민란’, 부산 박성아무용단(대표/박성아)의 ‘한쌍의

나비, 두 마리의 용’, 울산 라무용단(대표/김라정)의 ‘영겁놀이’, 부산 이팝DANCE COMPANY(대표/박연정)의 ‘甲-갯’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젊은 춤꾼들의 창작춤판이 펼쳐진다.

한달간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폐막공연은 10월 26일 연악당에서 ‘명무열전’으로 펼쳐진다. 석봉스님의 ‘법고무’을 비롯해 이성훈의 ‘동래학춤’, 심지영의 ‘삶, 마지막 푸리’, 김은경의 ‘산조춤’, 김홍종의 ‘통영버꾸춤’, 엄옥자의 ‘통영살풀이춤’, 이윤석의 ‘고성입춤’, 김진홍의 ‘승무’가 무대에 오르며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이 ‘진주교방굿거리춤’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밖에 9월 29일과 10월 20일 부산시민공원 향기의 숲에서는 전통예술원 놀제이의 ‘어울마당 풍물세상’과 찾아가는 소싸움판 ‘우왕전(牛王傳)’이 펼쳐진다. 한편, 축제 기간동안은 춤꾼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진정한 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춤워크숍’이 9월 28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국립부산국악원 강습실에서 진행된다. 국립부산국악원 안무자 정혁준, 재인조선인무용가 김유열, 전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 심숙경, 대구금회복춤보존연구원장 배관호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영남 춤의 멋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 대구시립국악원





## ‘상심의 바다 (Sea of Heartbreak)’에서 자연과 생태, 삶을 이야기하다

### 2019 바다미술제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미술축제 ‘2019 바다미술제’가 9월 28일부터 한달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987년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후 그동안 격년제로 가져온 바다미술제는 부산의 상징적 자연환경인 바다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전시로, 현대미술이 가진 장벽을 낮추고 대중들이 보다 친근하게 예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

올해 바다미술제의 전시주제는 ‘상심의 바다(Sea of Heartbreak)’. 싱어송라이터 돈 김슨의 동명의 명곡에서 착안한 것으로, 그의 노래 속 바다가 실연의 아픔을 은유하는 공간이라면, 이번 전시를 통해 조명하는 ‘상심의 바다’는 자연환경이자 생태, 삶의 터전 등 다층적 의미를 가진 공간을 의미한다.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이번 바다미술제를 통해 환경과 삶에 대한 고민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유구한 시간을 거처온 바다에서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한다.

생명의 보고였던 바다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 요인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최소 800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2050년에 이르면 바다에 물고기





9.28<sup>토</sup> - 10.27<sup>일</sup>

9월 28일(토)-10월 27일(일) 다대포해수욕장  
무료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503 6111, [www.busanbiennale.org](http://www.busanbiennal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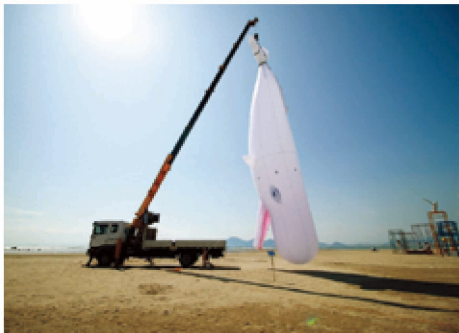
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미래를 예견한 바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과 기후,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2019 바다미술제는 훼손된 자연환경이 야기시키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개인과 사회, 인류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상처를 들여다본다. 전시는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며, 여러 사람과 함께 삶과 밀접한 쟁점에 관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방식이 적용된다. 관람자가 전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1인 창작자가 아닌 콜렉티브 방식의 참여가 이번 행사에 더해짐으로써 삶으로부터 분리된 예술이 아닌 동시대 삶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로서의 예술을 보여준다. 올해 바다미술제에 참가하는 12여개국 30여명의 작가들은 이번 미술제를 통해 위기의 바다에서 상처받은 바다와 변화를 꿈꾸는 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바다를 보여주며, 참여자와 수용자 모두에게 생태와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을 펼쳐보인다.

특히 이번 바다미술제는 자연학습장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이 곳에서 바다미술제가 개최되는 것은 2015년 ‘보다-바다와 씨앗’, 2017년 ‘Ars Ludens: 바다+미술+유희’에 이어 세 번째이다. 바다라는 열린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환경, 나아가 생태에 대한 새로운 시선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전시감독으로 선정된 서상호 오픈스페이스 배 대표는 “인류의 생존 근간인 생태를 난개발하며 오직 인간의 안위를 위해 매진해온 우리에게 자연환경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참한 현재와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며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결국은 희망적인 미래를 말 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로 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017 바다미술제



◎ 2019바다미술제 개최지 다대포해수욕장



## 가마솔과 같고 아버지와 같은 국악관현악을 기대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정수 예술감독 취임 축하연주회



◆ …… 평론가, 연출가 **윤중강**

적임(適任)이란 단어가 있다. ‘어떤 임무나 일에 알맞음’을 뜻한다. 어떤 일에 딱 맞는 사람을 가리켜 ‘적임’ 또는 ‘적임자’라고 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김정수는 ‘적임’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기에 딱 알맞은 인물이다.

국악관현악이란 장르가 국악계에서 큰 위치를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 국악이 매우 다변화되었기에, 국악관현악이란 장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국악관현악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국악관현악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레퍼토리 측면이나, 악기편성의 측면에서 모두 그렇다. 국악관현악을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동일하게 보고 접근하는 방식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즘은 더 큰 아쉬움이 있다. 역설(逆說)적인 얘기다. 어떤 국악관현악단이 앞서 제시한 고민을 해결해주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그렇기 어렵다면 “국악관현악단의 성립과 성장을 제대로 반영된 음악”을 제대로 연주했으면 좋겠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반’위에서, 국악관현악단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김정수라는 인물이 적임이라고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이 유가 바로 이것이다. 김정수, 그가 곧 국악관현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악계에서 여러 방면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국악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1985년 KBS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을 했을 때, 김정수는 악장을 맡았다. 1965년에 창단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레퍼토리와 국립국악원의 ‘한국음악창작발표회’가 기반이 된 ‘국악관현악’을 보다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악관현악단이 있다. 그 악단 중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선배격이다. KBS국악관현악단보다 먼저 창단되지 않았던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현대국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들어서 국악관현악이란 장르가 국악계의 중심에서 벗어나기도 했다지만, 그간의 부산국악관현악단을 높게 평가할 어떤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해하지는 말라! 특별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그것이 타 지역 또는 대한민국 국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초기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은 그렇지 않았다. 초대 지휘자 이의경(1984년 5월~1989년 12월)의 5년간 위촉 초연했던 곡은 20곡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전진기지가 부산이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초연한 곡이 다른 지역, 다른 악단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이렇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2대 지휘자 김영동과 3대 지휘자 김용만 시절에도, 음악적인 방향은 매우 달랐지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대한 국악계의 관심이 컸다. 이후는 부산에는 크게 성장했는지 모르나, 매우 아쉽게도 국악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간의 노력은 인정하나, 그간의 이런 정황을 또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김정수 예술감독에게 크게 기대한다.

김정수 예술감독은 그간 여러 단체를 잘 이끌어왔다. 따라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도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 분명 어떤 비전과 실행 가능한 청사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가장 ‘국악관현악’적인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초창기의 위촉 초연했던 작품을 재연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작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다. 또한 김정수라는 인물과 연결되는 ‘차음악’도 더 좋은 방법으로 이어 지길 희망한다.

김정수 예술감독의 취임 축하연주회의 제목은 ‘예향대동(藝港大同)’. 예술감독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악계의 주요한 연주가가 자청해서 협연을 원했던 것으로 안다. 허윤정(거문고), 강영근(피리), 양경숙(피리), 민의식(가야금), 박환영(대금)이 협연을 했고, 김정수의 음악세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성경이 지휘를 맡아서, 취임연주회는 매우 품격있게 성공했다. 협연자의 음악적인 역량은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곡의 레퍼토리는 그간의 국악관현악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는 선곡이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국악관현악의 레퍼토리를 통해서 관객들은 모두 아름다운 느낌표

를 경험했고, 앞으로의 국악관현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주었다.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많은 중견국악인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찾았다. 국악계가 앞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을 주목한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았다. 최근 몇 해 동안, 가장 주목을 받은 국악관현악단 연주회가 아니었을까?

김정수는 부산 출신이다. 수정동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정수라고 했단다. 오래도록 국악계의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 그가 경험한 연륜, 그와 연결된 인맥, 그가 터득한 지혜가 삼박자를 이루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많은 단원들과 ‘대동’해서 부산이 ‘예향’임을 앞으로 계속 입증해내야 한다. 한번으로 그쳐선 안 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야 할까? 부산(釜山)의 부는 가마 부(釜)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음악은 ‘가마솥’같은 음악을 만들어내야 한다. 가마솥은 어떤 솥인가? 아주 크고 우묵한 솥이다. 냄비처럼 쉬 끓고 쉬 식어선 안 된다. 가마솥처럼 넓고 깊고 오래가는 음악을 만들길 희망한다. 가마 부(釜)자에는 아버지 부(父)가 있다. 지금 우리 국악계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가 김정수이다. 그는 특히 이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중책을 맡으면서 단원은 물론 주변에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김정수는 악단을 부성(父性)으로 이끌어 줄 것이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찾는 관객에게도 그런 부성이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독특한 음악적 정체성으로 정립되길 희망한다. 가마솥과 같은 묵직함과 융숭함, 아버지와 같은 단호함과 넉넉함, 김정수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바로 그런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면, 다시금 전국의 모든 단체들이 새롭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악관현악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다.



## 수준 높은 기량이 연주자들이 선사하는 실내악의 향연

###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 …… 음악평론가 박진홍

지난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는 3회째를 맞는 챔버페스티벌이 열렸다. 필자는 그 중 오프닝 무대였던 노부스 콰르텟의 연주와 그 다음 날 있었던 슈투트 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의 연주를 관람하였다.

노부스 콰르텟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력 있는 연주단이다. 이날 연주에서도 수준 높은 연주뿐만 아니라 '새로움'과 '젊음'을 뜻하는 노부스(Novus)의 이름에 걸 맞는 무대 매너,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챔버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격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첫 곡으로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보 작품번호 117번이 연주되었다. 악보의 음들은 균일하게 연주자의 관심을 받으며 깊이 있는 울림으로 재현되었다. 굳더더기 없이 간결하지만 굵은 선율의 흐름결을 이어갔는데, 부드러우면서도 리드미컬한 활의 움직임에서 자신감과 성실함이 느껴졌다. 이어진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3번 작품번호 44-1번에서는 확신에 차고 거침없는 연주를

볼 수 있었다. 섬세함과 부드러움, 강렬함, 냉정함, 따뜻함과 슬픔 등의 다양한 감정의 흐름을 민첩하지만 능숙하게 바꾸어 가며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마지막 곡으로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작품번호 810번 '죽음과 소녀'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죽음과 소녀'의 선율을 사용해서 같은 제목으로 불리는 곡이다. 가곡 '죽음과 소녀'는 독일의 시인 마티아스 클라디우스의 시를 노랫말로 사용한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녀와 달콤한 말로 소녀를 유혹하는 죽음에 관한 내용이다. 관객들은 노부스 앙상블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하는 연약한 소녀와 어두운 죽음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긴 연주 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는 정확성과 밸런스 그리고 곡에 대한 명확한 해석력이 돋보였다. 화려한 클라이맥스를 지나 걱정적인 마지막 활이 하늘을 향하는 순간 열광적인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챔버홀 전체를 꽉 채웠다. 좀처럼 줄지 않는 환호로 여러 번의 커튼콜이 이어지고 앙콜곡으로 아리랑이 연주되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연주자나 관객들에게 더욱 결연한 느낌을 주는 아리

량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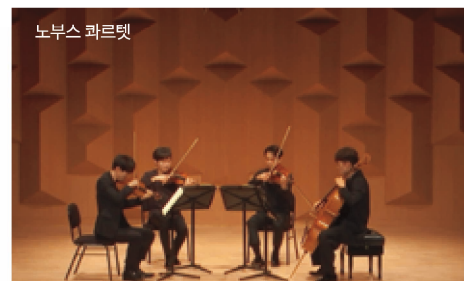
둘째 날은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4중주단의 연주가 있었다. 페가소스 현악 4중주단은 1991년 창단 이후 최정상급의 실내악 앙상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첫 날 노부스 앙상블의 연주가 음악이 가진 심상들을 충실한 해석과 뛰어난 감각으로 잘 만들낸 연주였다면, 페가소스 앙상블의 연주는 조각난 것을 애써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던 것을 편안하게 보여 준 연주였다.

첫 곡으로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2번 작품번호 703번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슈베르트 자신이 작곡한 미완성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작곡 도중에 멈춰버려 끝을 내지 못한 작품이다. 이후에도 현악 4중주곡을 작곡했으니 미완으로 남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미완성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1악장만으로도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바이올린은 첫 시작부터 담담하게 선율을 이끌어 갔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직접 연주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청중들에게 자신은 3인칭 관찰자임을 녀살 좋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리더인 테오 브로스는 굉장히 섬세한 피아니시모를 구사하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울림까지 고려하는 연주로 관객들의 몰입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두 번째 곡으로는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17번 작품번호 458번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1악장의 시작이 사냥을 나갈 때 부는 뿔피리 소리를 연상시킨다하여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빠르게, 보통 빠르게, 아주 느리게, 빠르게’로 이어지는 4개의 악장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동시에 작품 전체가 가진 통일성을 견고하게 지켜 나감으로써 매우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필자는 특히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작품번호 8번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흘러내리는 피아노

의 선율을 타고 첼로가 마음을 휘감으며 1악장이 시작되었다. 첼로에서 바이올린으로 그리고 비올라로 주선율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작품의 구조를 선명하면서도 유려하게 전해 주었다. 또 피아노는 부드러운 음색으로 현악 앙상블을 자신의 테두리 안으로 감싸 안았다. 2악장에서는 주선율의 반복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였는데, 우아함과 냉정함, 상큼함과 정겨움, 열정이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다. 2박과 3박으로 반복하여 박자가 바뀌는 3악장에서는 변화하는 리듬의 명확성과 새로운 색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 4악장에서는 피아노가 분위기를 바꾸고, 첼로가 생경한 트레몰로로 주의를 끌며, 바이올린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선율을 이끌어 갔다. 그리고 다시금 서정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지난 시간을 떠오르게 했다. 악보를 되돌리지는 않았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기억 속에 흩어져 있던 음악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 마무리로 이끌어갔다. 관객들은 정상급의 완벽한 연주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 주었고, 연주자들은 쇼스타코비치의 모음곡 중 왈츠로 화답했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보름여 기간 동안 국내외, 부산의 연주자들이 실내악이라는 주제로 관객과 만남을 가졌다. 수준 높은 기량을 가진 연주자들이 선사하는 실내악의 섬세하고 몰입도 높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3년 동안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실내악의 향연을 즐길 수 있어 참 감사하고, 내년 프로그램에서 어떤 시대, 작곡가의 실내악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 기대된다.



## 눈 내리는 안쪽

### 극단 누리에 '파 한 단 두부 한 모'



◆ .....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김남석**

창밖을 바라보던 여자는 자신이 '눈 내리는 안쪽'을 보고 있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곳, 그러니까 눈 내리는 안쪽을 보고 있노라면, '방향감각'을 잃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무심하게 되받고 만다. 여자들은 늘 허튼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투의 말투로, 눈 내리는 안쪽을 보면서 방향을 잃고 있는 아내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아내 역시 자신이 왜 눈 내리는 안쪽을 보고 있으며,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감수성이 예민한 아내와, 다소 무덤덤한 남편의 일상적인 대화로 볼 수 있다. 눈을 주제로 한 일상의 대화로, 혹은 며칠 전 그들이 나누었던 아이에 대한 심상한 고민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어디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대사로,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 한 단 두부 한 모>에서 아내의 감성 어린 이 대사는 이외의 울림과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극중 아내가 말했던 '눈 내리는 안쪽'은 어디일까. 그곳에서 길을 잃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었을까. 연극 <파 한 단 두부 한 모>에서 이 공간을 찾아 나서면, 다음의 상황을 추려낼

수 있다. 가난한 비정규직 부부의 아내는 어느 날 임신한 자신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축하해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히려 남편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그 뒤 상당한 기간에 걸친 신경전이 이어졌다. 부부싸움도 찾아왔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내는 임신한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했고, 생활비를 아껴서 살아보겠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반박했고, 그러한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비 정산에 돌입한다. 함부로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이 정산 장면에서, 그들은 일상의 자질구레한 세목을 우리-동시대의 관객 앞에 끌어낸다. 월세, 대출금, 케이블 TV 비용, 부모님 용돈, 문화관광료, 미장원 비용, 보험료에 남편의 담배 값까지. 이들 부부는 첫 번째 계산에 나가떨어졌고, 아등바등 1/3 가량을 줄여 간신히 그들이 목표했던 금액에 근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달랑 8만원. 이 젊은 부부는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살아도 자신들에게 고작 남은 돈이 8만원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제는 아이의 양육을 포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누추한 일상을 쳐다보아야 하는 우리들(관객들)도



절로 한숨을 쉬게 된다. 그들 부부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는 풍경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눈이 증명하듯, 눈 그 자체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용한 물건이 아니다. 시내에 쌓여 미관을 해치고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애물단지가 되기 일쑤이다. 현실의 쓸모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토록 아름다웠던 풍경의 이면,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다하고 남은 자질구레한 뒷맛에 좀처럼 마음을 내려놓기 힘들다. <파 한 단 두부 한 모>에서 아내가 보고 있었다는 ‘눈 내리는 안쪽’이란, 기실 그 눈이 다하고 찾아올 실망과 환멸 그리고 깔끔하지 못한 여운을 진하게 남기는 우리 삶의 뒤편을 의미하는 듯 했다. 식탁에 앉아 불가능에 가까운 살림 계획을 세우며 생활비를 줄여 내겠다는 바운더리는 젊은 부부의 일상은, 아름다운 눈이 결국 지저분한 잔영을 남기는 현실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래서 <파 한 단 두부 한 모>에서 이러한 아내가 보고 있다는 ‘내리는 눈의 안쪽’은, 그토록 외면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마주해야 하는 일상의 한 면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을 수는 있다. <파 한 단 두부 한 모>는 이 점을 마지막에서 강조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은 낙태 여부를 두고 심하게 다투고(이 대목에서 두 배우의 연기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절망에 휩싸여 함께 울어야 했다. 막막한 삶의 벼랑도 끝나지 않았다. 직업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들 부부를 연달아 덮쳤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완전히 달라졌다. 언제 싸우고 언제 다투었냐 싶게, 그들은 그들이 놓인 일상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최선’이라고 인정해 버린다. 그리고 그 일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은 한 명은 침대에 반쯤 눕고, 다른 한 명은 식탁 의자에 턱 하니 발을 올린 채 색소폰을 분다. 잘 불지는 못하지만, 암흑 같았던 길을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남길 정도로 희망적으로 볼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파 한 단 두부 한 모>에서 ‘눈 내리는 안쪽’은 이 대목—사실 이 대목은 결말이다

—에서 한 겹의 의미를 더 끌어안고 있다. 구질구질한 일상의 세목과 절망으로서의 삶이 이전까지 그 안쪽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면,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달라질 수 있다는 안도’가 자연스럽게 투입하여 절망과 맞선다고나 할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고,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한 구절—‘눈 내리는 안쪽’은 작품의 템포와 분위기를 조율했다. 두 겹의 의미가 서로 맞서지만 동시에 달라붙어 결국 양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 의미망도 만들어낸다. 항상 절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말이다.

극단 누리에는 이 작품을 단속적인 암전 사이에서 펼쳐놓았다. 근원적 이유는 대본이 시간의 비약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암전이 반복되었고, 배우들은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는 뒷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때로는 지나친 단절감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불만을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전을 목격하는 일은 번거롭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중심 서사를 이어갈 때 생겨날 장점도 역산(逆算)하기도 했다. 암전을 고집한 연출가의 선택은 작품 뒷부분에서야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낙태 문제로 싸우고 절망적인 상황에 고조될 때야 이 암전들이 그 가치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의 단속이 두 부부의 침예한 상황 속에서야 비로소 유효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암전이 제자리를 되찾자, 반전으로서의 암전도 나타났다. 남편은 직장을 잃지 않았고, 부부는 아이를 잃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잃지 않았다. 그 직전의 암전은, 그 이전의 암전과는 달리 자신만의 기능을 분별할 수 있었다. 연출가가 암전까지 의도했는지는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작품의 초반과 중반이 이로 인해 템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암전으로 템포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결국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잇고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한 단순한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사족처럼 덧붙여둔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빛의 화가들展

**일 시** 6월 8일(토)-9월 29일(일) 전시실  
**입장료**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대까지 30% 할인,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문화로페데이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170



모네, 고흐, 고갱, 마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 등 인상주의 거장 7명의 320여점의 작품들이 초대형 파노라마 캔버스에 영상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전 '빛의 화가들'.

인상주의의 예술적 의의와 가치 및 주요 작품들을 비롯해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영상 등을 통해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 6개의 테마별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 **관람시간/오전 10:30~오후 7:30**  
 (오후 6:3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일 시** 7월 2일(화)-9월 8일(일) 오전 11:00  
 (월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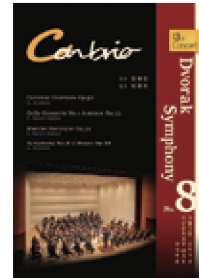


평화로운 지구에 어느 날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안전왕자와 친구들은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 발생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유형별 위기 순간에 대한 대처 요령을 노래와 춤을 통해 쉽게 배워볼 수 있는 '도와줘요 안전맨'은 2015년 국민안전 안전문화창작뮤지컬 우수상 수상, 2017년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콘브리오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1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콘브리오 010-6714-3336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부산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콘브리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항상 생기있게 음악을 즐기려는 단원들의 마음을 담아 '생기있게'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콘브리오(Con brio)'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콘브리오 오케스트라는 2012년 11월 창단한 후 그 이듬해인 2013년 3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 학기마다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산악협력 교류회, 국제마루음악제 콘서트, 부산시 프로젝트 초청공연, 열대야 페스티벌 초청공연, 아마추어 교향악축제, 금정산성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정현진 ● 협연/박준우(첼로)

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 2019 정기연주회  
 해아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 시** 9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공연당일 좌석권 배부)  
**문의** 해아연 010-8991-4148



지난 2013년 천년을 이어온 해금과 아쟁의 선율을 전하기 위해 해금, 아쟁연주자들로 결성된 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奚牙淵)'의 2019 정기연주회.

해금, 아쟁중심의 새로운 어울림을 시도하면서 활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계절을 표현하고자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각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과 풍경, 바람,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설렘과 두려움, 기대, 후회, 아쉬움 등 여러 감정들을 잘현악기의 활 끝에서 떨리는 여음으로 전한다.

청춘가악 두 번째 정기연주회  
 청춘가악에 취하다

**일 시** 9월 1일 일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청춘가악 010-4767-4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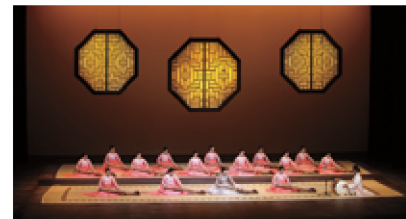


부산, 경남지역의 한국음악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국악에 취한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청춘가악의 무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악'이라는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대금독주뿐 아니라 대금합주, 대금과 양금합주, 전통 성악곡까지 다양한 연주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5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황금 물고기'

**일 시**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1만원  
**문의** 부산가야금연주단 010-3260-3256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한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 가야금 전공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의 15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중앙관현악단 부지휘자, 여수시립국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이경선의 지휘, 무대마다 화제를 몰고다니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정신헌무용단 협연으로 2019 위촉 초연곡인 김성국 곡 '황금물고기'를 비롯해 창작곡과 전통음악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제22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uite for strings

**일 시**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예술기획 010-4909-7444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를 주축으로 부산의 정상급 현악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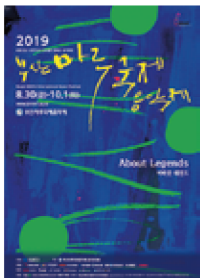
**프로그램**  
텔레만/돈키호테 모음곡  
파헬렐/캐논 라장조  
파헬렐/샤콘느 바단조

피터 워락/카프리를 모음곡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등

- 예술감독/임병원
- 바이올린/임병원, 김은정, 김나영, 이기묘, 고은비, 김언정, 서영희, 금성빈, 조혜란
- 비올라/최영식, 김민경, 권덕진
- 첼로/이동열, 김유미, 이유진
- 베이스/윤민우 ● 기획/연출/이형춘

###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

**일 시**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 축제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6번째 무대.

지휘자 렌창 푸(Renchang Fu)가 이끄는 사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라이징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팔로마 소(Paloma So)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핀란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벨리우스의 곡들로 꾸며진다.

- 지휘/렌창 푸
- 연주/사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팔로마 소(바이올린)

###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Sweet September

**일 시** 9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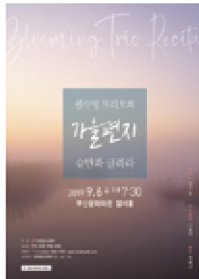


현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진 독주회. 감동을 더해주는 실력파 연주자이자 강단 위의 교수, 그리고 부산 MBC 라디오에서 DJ로 활동하기도 한 이명진은 친근하고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설로 청중들에게 보다 폭넓은 감동을 선사한다.

- 프로그램**  
바르톡/랩소디 제1번  
그리그/첼로스나타 가단조 작품 36  
베토벤/첼로스나타 제3번 가장조 작품 69  
● 피아노/올리버 케른

### 블루밍 트리오 연주회 블루밍 트리오의 가을편지, 슈만과 클라라

**일 시**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서울대학교 동문이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연주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나윤아, 첼리스트 장혜리, 피아니스트 정소윤으로 결성된 블루밍 트리오의 무대.

블루밍 트리오의 유학 시절부터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라 슈만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당시 뛰어난 여성 작곡가였던 클라라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트리오곡인 '피아노 트리오 사단조 작품 17'과 로버트 슈만의 말년의 내년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피아노 트리오 제3번 작품 110'을 들려준다.

### 제29회 무지카비바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워너스 기획 02-521-8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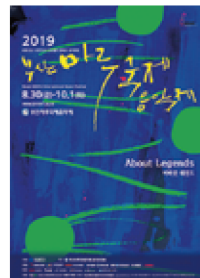


지난 1988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창단된 무지카비바 앙상블의 29번째 정기연주회. 임시정부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

에서는 작곡가 최현석의 오페라 '도산 안창호' 중 '광화문연가', 김보현의 '무루(無漏) VII', 이지수의 '아리랑 랩소디', 막심 트라비치의 'Croatian Rhapsody' 등 나라의 애환을 담은 곡들을 연주한다. 특히 무지카비바는 9월, 미국 펠트사이드파크시 초청으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와 9·11테러 피해자를 추모하는 미국 초청무대에 선다.

###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I

**일 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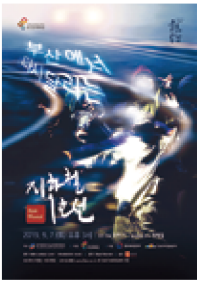
수석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샤하자예바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차이콥스키, 린스카-코르사코프의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인민 예술가이자 카자흐 국립예술대학교의 총장인 협연자 아이만 무샤하자예바는 2002년 World Honorary IBC에 '20세기 뛰어난 2000명의 음악가', 캠브리지대학의 백과사전엔 '20세기의 주요 음악인'으로 수록됐으며 2003년 캠브리지의 국제인생센터로부터 '국제음악인' 명예훈장을 받기도 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일 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1994년 초연된, 한국 뮤지컬계의 전설 '지하철 1호선' 부산공연. 독일 그림스(GRIPS)극단의 'Linie 1'이 원작으로, 극단 학전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김민기가 한국적인 시각에서 새로 번안·각색한 '지하철 1호선'은 연변쳐녀 '선녀'의 눈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려내며 20세기 말, IMF 시절 한국 사회의 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아냈다. 지난 2018년 10년만에 다시 학전소극장에서 공연되어 화제가 된 '지하철 1호선'은 지난 4개월간 1만 5천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다.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010-8515-9181



광남초등학교 관현악부 재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1999년 광남초등학교 관현악부로 출발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12차례 정기연주회와 유진박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KBS부산 동요대회, 부산시교육청 신년음악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지휘자 윤강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를 비롯해 실내악 위주의 곡을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발레모음곡 '호두까기 인형'을 들려준다.

**제49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지난해 창단 25주년을 맞았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며 마련하는 49번째 정기연주회. 클래식 메카 베를린 필하모니홀, 빈 무지크 페라인 황금홀, 동경예술극장, 프라하 스테타 나홀 등 세계적 연주홀에서 한국 지휘자를 각인시킨 부산출신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특히 2014년 부산 민간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서울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2006년, 2007년,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축하공연을 비롯해 2007년, 2014년 부산국제음악제 전야 대음악회, 2008년, 2012년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등 국제적 행사의 무대에 다수 서왔다.

그동안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악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의 협연으로 하순봉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디아포론'을 비롯해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 26',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작품 68'를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은 Eisenberg-Fried 콩쿠르, Artists International 콩쿠르 우승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그동안 뉴욕 카네기홀을 비롯해 뉴욕 링컨센터,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호암아트홀, 부산문화회관 등 다수 무대에서 썼다.

- 예술감독/오충근(지휘)
- 협연/김주영(바이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5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9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3



미래의 부산지역 문화 예술을 이끌어갈 차세대 연주자 육성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에서 수학중인 유망 음악전공자들에게 협연무대를 제공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5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명근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5명의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 마르첼로/오보에 협주곡
- 하이든/첼로 협주곡 제1번 1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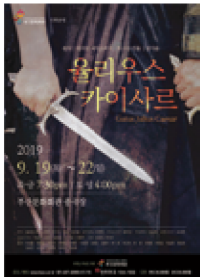
생상스/첼로 협주곡 제1번 3악장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1악장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0번 1악장

- 지휘/이명근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오보에/최세린(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 첼로/이금빈(부산대학교 3학년), 이현아(부산대학교 4학년)
- 트럼펫/손정원(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 피아노/민지원(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율리우스 카이사르**

**일 시** 9월 19일(목)-22일(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중학생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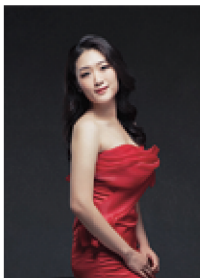


신으로 추앙받던 카이사르를 살해했지만 결국 실패한 혁명이 되어 버린 로마 역사의 대사건을 배경으로 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의 첫 콜라보레이션으로, 인물 내면의 심리를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이끌어내는 김지용 예술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을 엿볼 수 있다.

- 재구성, 연출/김지용
- 출연/유상훈, 엄준필, 윤준기, 박현형, 안예은, 이동현, 장현주, 강범수, 박현, 박규한, 이타성, 차승현, 한승현, 김승원, 남진수 외

**소프라노 박나래 귀국 리사이틀**

**일 시**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박나래 010-4112-4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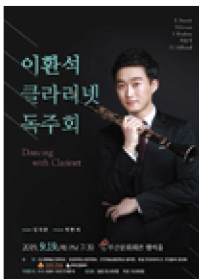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오페라와 콘체르트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소프라노 박나래의 귀국 독주회. 박나래는 이번 무대에서 헨델을 비롯해 슈베르트, 볼프, 도니제티, 뽈랑, 델라쿠아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통해 유럽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피아노/김란

**이환석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9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이환석 010-6284-6357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독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도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Master)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 독주회.

유학시절 피아노 트리오로 참가, 이탈리아 Citta di Barletta 1위, EUTERPE 국제 콩쿠르, Giovanni Misticisti-Citta di Treviso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입증받은 이환석은 올해 3월, 오디션을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무대에 선 바 있다. 이환석은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김지은
- 바이올린/박완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일 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여행'을 소재로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소개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합창음악과 더불어 작곡가 유효원의 뮤지컬 '아라비안 나이트' 중 '아라비안 나이트', '나는야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 '날으는 양탄자'를 들려준다. 특히 극동방송 율학원코랄, CTS 소년소녀 합창단 프로젝트 콰이어 전임 안무 연출을 맡고 있는 김희연의 연출로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 찬조출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5주년 기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1회 정기연주회 축제**

**일 시**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창단 25주년 기념 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 '축제'.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초대악장을 역임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이상진과 현 악장으로 있는 공귀주가 함께 출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창단 25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생상스/동물의 사육제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K.219 1악장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등

**바리톤 박찬 독창회**

**일 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음악이주는선물 010-6527-0212



이태리 G. Nicolini 국립음악원, Orfeo 아카데미, Ducale 아카데미 오페라과, G. Donizetti 음악원 합창지휘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박찬 독창회. 그동안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 무대를 비롯해 독창회 및 오케스트라 협연, 초청연주회 등 국내 다수무대에 서온 박찬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 '코지 판 투테',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박쥐'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오라토리오 독창자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피아노/윤민화
- 스페셜 게스트/TDC양상봉

**부산국악작곡가회 제18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소리 여행**

**일 시** 9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국악작곡가회 510-1739



지난 2001년 3월 결성, 2002년 5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새로운 창작작품 발표를 통해 창작국악의 활성화에 기여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의 18번째 정기연주회.

올해 무대에서는 지휘자 백규진이 지휘하는 효원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창작 국악관현악 및 실내악곡을 들려준다.

- 지휘/백규진 ● 대금협연/이중희
- 연주/효원국악관현악단
- 작곡/황의중, 조익래, 이은경, 성기영, 박선영, 김명옥, 백진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5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9,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정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5회 청소년 협연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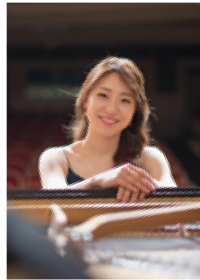
문규태(대금), 주은지(거문고), 김소정(가야금), 김지수(해금), 신나예·신제원(가야금병창), 장윤지·권민수·손유진·고경빈·이태영·이예리(사물놀이) 등 오디션을 거친 차세대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정호/김동진류 대금산조협주곡 '부활'  
계성원/거문고 협주곡 '청우'[부산초연]  
이정호/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푸른사막의 여정'

**박민선 피아노 독주회**

**일 시** 9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박민선 010-5516-8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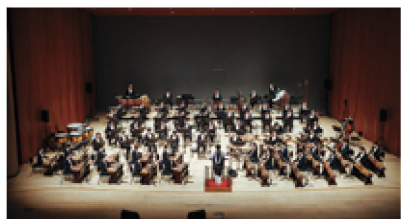
현재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민선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박민선은 그동안 MBC목요음악회, 금정수요음악회,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김해국제음악제 등에 초청되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민선은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고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슈만, 스크랴빈, 쇼팽 등 다양한 작곡가의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김성경/해금협주곡 '월백·설백·천지백'  
정대석(편곡)/가야금병창 '홍부가' 중 '제비노정기'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 지휘/김정수(예술감독)
- 협연/문규태(대금,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4학년), 주은지(거문고,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4학년), 김소정(가야금,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과정), 김지수(해금,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과정), 신나예(가야금병창,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신제원(가야금병창, 가야고등학교 1학년), 사물놀이 장윤지(장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3학년)·권민수(장구, 동래고등학교 3학년)·손유진(쟁과리,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고경빈(북, 부산원예고등학교 3학년)·이태영(북, 동래고등학교 1학년)·이예리(장·적쇠, 학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17번째 오동주의 스토리콘서트  
'시간'**

**일 시**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오동주 010-4556-5058



매년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테너 오동주의 무대.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루이지 단눈치오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페스카라제 국립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예술경영)을 수료한 오동주는 그동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모세', '팔리아치'의 주역을 맡는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으며 부산 MBC 라디오 '오동주의 성악의 순례', 부산 MBC TV '눈으로 듣는 아리아'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오미선, 비올리스트 최영화, 부산광역시공무원합창단
- 피아노/김경미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

**일 시**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가을의 길목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할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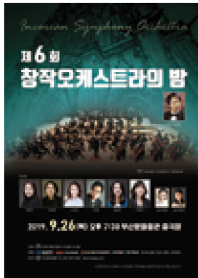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한 경연 두 번째 무대로, 충신대학교 교회의음악과 명예교수이

자 한국 합창음악계의 리더로 활동해오고 있는 지휘자 이기선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한다. '선이 굵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드는 지휘자'라는 평을 받는 지휘자 이기선은 그동안 고양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는 등 국내 주요 시립합창단의 지휘를 맡았으며, 현재는 올 챔버 콰이어 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제6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일 시**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사)부산음악협회가 지역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김보현, 방희연, 권유미, 노선경, 배진의, 박규동 등 6명 작곡가의 창작 관현악곡을 동의

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인코리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 지휘/윤상운
- 해설/김윤선
- 연주/인코리안오케스트라
- 가야금/이문희

## 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독창회

**일 시**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트락 010-5468-4658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수석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데트몰트 국립음대 성악과 전문연주자과정,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독창회.

라인스베르크 왕실 캄머오페라 주최 국제오페라콩쿠르 2년 연속 베이스 부문에서 수상한 양재원은 독일 데트몰트 주립극장 전속 주역가수, 빌레펠트 시립극장, 라인스베르크 왕실 캄머오페라, 브라운슈바이크 주립극장, 브란덴부르크 시립극장, 크레펠트 뮌헨글라트바흐 시립극장 객원 주역가수로 활동하며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활동해왔다.

- 피아노/김현경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 프렌치 호른

**일 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초가을의 길목에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 '프렌치 호른'.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

향시 전곡 사이클' 아홉 번째 무대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중 가장 먼저 발표된 작품이자 가장 대중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교향시 '돈 후안'과 '호른 협주곡 제1번'을 오솔로 필하모닉 수석 호른리스트인 김홍박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 지휘/최수열 ● 호른/김홍박

## 바리톤 유용준 리사이틀 This is for YOO

**일 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유용준 010-8694-208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실기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밀라노 G.VERDI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밀라노 Claudio Abbado 시립음악원 오페라, 보컬코치를 졸업하고 2016년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바

리톤 유용준의 두 번째 독창회. 지난해 9월 부산 출신 작곡가들과 창작곡으로 구성된 첫 정규앨범 'This is for YOO'를 출반했던 유용준은 이번 무대에서 'This is for YOO'에 수록된 곡들과 이탈리아 대표 작곡가인 베르디의 아름다운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최영민

## 김정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섬세하고 다채로운 음색을 지닌 피아니스트 김정은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노독, 칼스루에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로버트 슈만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김정은은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인 AYAF 앙상블, 피아노듀오 OPUS-K 앙상블 멤버로 활동하는 한편,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라 슈만 탄생 250주년을 맞아 클라라 슈만과 로버트 슈만의 작품 외에도 쇼팽의 곡으로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일 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클래식 연주와 샌드아트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이번 무대는 부산, 경남 지역의 젊은 클라리넷 전문 연주단체인 유니크클라리넷앙상블이 '특별한 음악, 기억에 남는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누구나 좋아하는 생텍쥐베리의 아름다운 동화 '어린왕자'의 이야기를 유니크클라리넷앙상블의 연주와 샌드아트, 전문 연기자의 나레이션을 통해 들려준다.

- 샌드아트/류희 ● 나레이션/장현정
- 연출/김민기 ● 편곡/최진우

정지혜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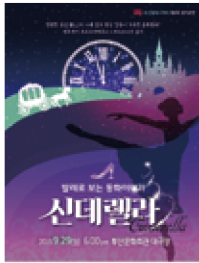


현재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반주연구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지혜 귀국 독주회.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블,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반주과 연주자과정,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최고연주자과정, 블로뉴 국립음악원 실내악과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정지혜는 홍콩 국제음악페스티벌 콘체르토&양상블콩쿠르 앙상블 부문 챔피언, 프랑스 코낙 국제피아노콩쿠르 포핸즈 부문 만장일치 1위를 차지하며 독주와 앙상블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바이올린/김우경 ● 첼로/서성은

부산발레시어터 제6회 정기공연 발레로 보는 동화 이야기 신데렐라

일 시 9월 29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부산발레시어터 513-7779



영원한 동심(童心)의 나라 꿈과 환상, 감동이 가득한 동화발레 '신데렐라'. 부산발레시어터 정기공연으로 선보이는 발레 '신데렐라'는 지난 1945년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와 프로코피예프의 음악, 러시아의 안무가 로스티슬라브 자하로프의 안무로 탄생된 작품으로, 부산지역 단체로서는 처음 전막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적 스타일로 스토리에 충실하게 안무하면서도 주제를 고양시키기 위한 춤과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 등 동화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가미하여 보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일세 첼로 리사이틀 Beethoven II

일 시 9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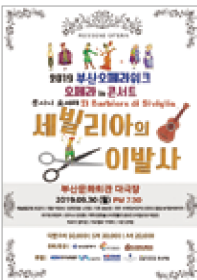
따뜻한 음색과 냉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첼리스트 이일세 독주회.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최연소로 입학하여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일세는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 앙상블코스모폴리탄 음악감독으로 중형무진 활동하는 한편,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하계음악아카데미 Wiener Musik Semir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올해로 음악인생 30주년을 맞은 이일세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무대로, 베토벤의 곡으로 꾸며진다.

- 피아노/박지은

2019 부산 오페라 WEEK 부산캄머오페라단 오페라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일 시 9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9 부산 오페라 WEEK' 첫 무대인 부산캄머오페라단의 오페라 in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젊은 연인들의 삼각관계를 경쾌하면서도 재치있게 그려낸 작품으로, 예술감독 최강지, 오페라 연출가 이효석의 연출,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VK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로 성악가 최강지, 신민원, 문한솔, 윤오건, 박상진, 양라운, 이태희, 강태영과 MF챔버과이어가 출연한다.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9 부산 오페라 WEEK' 첫 무대인 부산캄머오페라단의 오페라 in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젊은 연인들의 삼각관계를 경쾌하면서도 재치있게 그려낸 작품으로, 예술감독 최강지, 오페라 연출가 이효석의 연출,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VK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로 성악가 최강지, 신민원, 문한솔, 윤오건, 박상진, 양라운, 이태희, 강태영과 MF챔버과이어가 출연한다.

제4회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일 시 9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최대우 010-2869-6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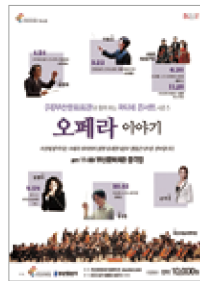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수석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Conservatorio Fausto Torrefranca di Vibo Valentia Diploma, 로마 아카데미 diploma, A. I. ART. 아카데미 합창지휘 diploma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효원성악회, 효원 칸탄데, 세계음악연구회, 그란보체 남성중창단, 부산남성성악가양성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최대우는 그동안 3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제1회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 후원 이탈리아 도시 순회연주, 오페라 주역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해설/이진호 ● 테너/차경훈 ● 피아노/안준희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V

일 시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2019년 다섯 번째 무대.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베르디의 후계자이자 사실주의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꼽히는 푸치니. TBN 부산교통방송 손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윤지영, 테너 김준연의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토스카', '나비부인', '마농 레스코', '투란도트'의 주요 곡을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스페이스 음 음악회

일 시 2일(월), 20일(금) 오후 8:00, 21일(토) 오후 3:00, 23일(월), 27일(금) 오후 8:00
스페이스 음

입장료 전석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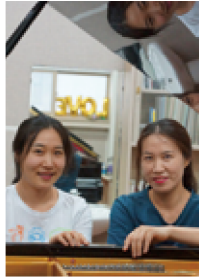
문의 스페이스 음 557-3369

2일(제356회) First Artiade concert

슈베르트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함께 했던 작은 모임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에서 이름을 가져온 'Artiade'의 첫 번째 콘서트. 소프라노 조지원, 성지원, 테너 하동훈, 권용훈 등 4명의 성악가로 구성된 'Artiade'는 이번 무대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4개국 언어로 사랑의 노래를 들려준다.

20일(제357회) 미스김의 여섯 번째 프로포즈 '전지적 미스김 시점'

미스김 김은정이 프로포즈한 문화예술인들의 솔직한 토크와 연주로 생생한 공감을 지향하는 무대로, 9월에는 시적인 감수성으로 나와 당신, 우주의 사이에 대한 사유한 산문집 '관계의 물리학' 저자 시인 림태주와 만난다.



21일(제358회) Sorina Piano Duo Ensemble

자매 피아니스트 박정희, 박미정이 함께 결성한 소리나 피아노 듀오 앙상블의 무대.

'소리'라는 한글 단어와 이탈리아어 '하나'의 뜻을 가진 'una'의 합성어인 '소리나'는 두 사람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결성된 후 '두 자매의 연주는 강약의 철저한 대비와 두 사람 사이의 리듬의 조화, 서로의 긴밀한 호흡의 달성으로 최고의 연주를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3일(제359회) 지림씨의 재즈로망스 'Elsa Kopf'

프랑스 몽마르뜨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엘자 코프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외국인 아티스트로서는 이례적으로 MBC '한 번 더 해피엔딩', tvN

'아름다운 나의 신부', 온스타일(Onstyle) '처음이라서' 등 국내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국내에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엘자 코프는 2014년부터 매년 내한공연을 통해 한국팬과 만나고 있다.

출연/엘자 코프(보컬&기타), 하병구(베이스), 전은총(드럼)

27일(제360회)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VI 소프라노 왕기현&테너 양승엽 '사랑의 노래'

문화유목민 정두환과 소프라노 왕기현, 테너 양승엽이 함께하는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여섯 번째 무대.

프로그램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안정준/아리 아리랑

김원호/물방아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꽃노래' 등 수곡

피아노/김경미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일 시 9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시영민 010-4182-0176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서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시영민은 해외파견콩쿠르 1위, 부일성악콩쿠르 2위, 대구성악콩

쿠르 우수상, BMIMF 콘체르토크림피디션 3위, 중국 닝보 성악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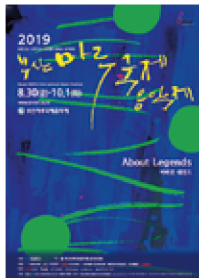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포레, 스트라우스, 바그너, 베르디 등 유명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II

일 시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 축제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콘체르토크림피디션 갈라 콘서트(본선)'로, 본선

에 오른 연주자들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가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선다.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 2 재즈로 담아낸 서울 풍경, 멋진 하루

일 시 9월 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커피 무료제공)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영화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시네마 브런치 9월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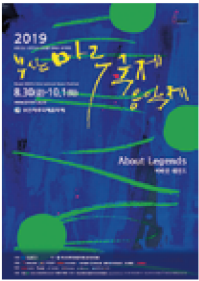
대에서는 '서울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만큼 도시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영화 '멋진 하루'의 이윤기 감독을 초청, 이 영화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푸디토리움이 직접 영화음악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영화 속 음악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준다.



기타공연장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일 시** 9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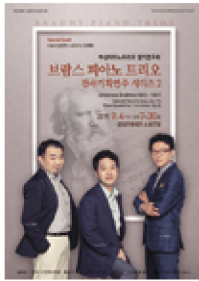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 축제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네 번째 무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텔아비브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지휘 바락 탈)가 클라리네티스트 마르틴 살로나와 함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작품 492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  
모차르트/교향곡 제35번 라장조 작품 385 '하프너'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11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4일(제698회)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 전곡기 획연주 시리즈 2**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 피아노 트리오'가 기획한 2019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 기획 연주 시리즈 두 번째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피아니스트 권준, 첼리스트 이일세로 구성된 부산피아노트리오와 비올리스트 김은진,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이 지난 3월에 이어 낭만시대 작곡가 중 실내악 작곡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던 브람스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클라리넷 트리오 가단조 작품 114  
브람스/피아노 사중주 제1번 사단조 작품 25



**18일(제699회) 윤종혁 클래식기타 리사이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수석 입학하여 기타리스트 이성우를 사사한 클래식기타리스트 윤종혁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과 함께 망고레, 파가니니, 로드리고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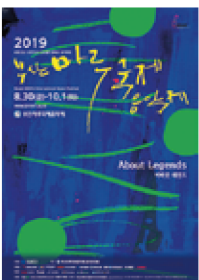


**25일(제700회) 조미지&김미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지난 2004년 첫발을 내딛은 후 다양한 무대로 시민들과 함께해온 금정수요음악회 700회 무대로, 피아니스트 조미지, 김미희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네 손을 위한 소나타  
슈베르트/환상곡  
생상스/죽음의 무도 등

2019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

**일 시** 9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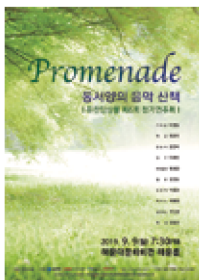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기악단이 출연하는 특별한 무대로, 기악 예술감독인 유경조가 지휘하고 김혜련(가야금), 김성진(피리), 허종훈(바리톤)의 협연으로 멋과 신명이 넘치는 창작국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이강덕/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  
황병기/가야금협주곡 '침향무'  
이상규/피리협주곡 '자진한잎'  
이준호/축제 등  
● 지휘/유경조  
● 연주/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기악단

퓨전양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퓨전양상블 010-3994-4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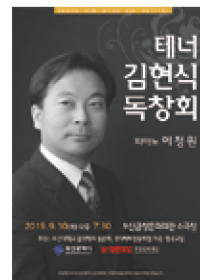


클래식과 국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색다른 양상블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퓨전양상블의 6번째 정기연주회. 개인 연주자의 뛰어난 음악해석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악기를 잘 조화시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결성한 퓨전양상블은 '동서양의 음악 산책'이라는 부제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가야금/이명일
- 해금/최유리
- 장구/이효빈
- 판소리/강은미
- 바이올린/백재진
- 오보에/박종관
- 첼로/김민승
- 피아노/서혜리
- 소프라노/구민영
- 해설/김윤선

테너 김현식 독창회

**일 시** 9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김현식 010-3566-4172



세련된 음악적 해석과 깊은 감성의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테너 김현식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스러 국립음대 성악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 객원성악가로 활동했던 김현식은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 및 솔로이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현재 동래중앙교회 찬양대 지휘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식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가곡을 비롯해 헨델과 슈베르트, 슈만, 슈트라우스의 곡을 들려준다.

## 2019 을숙도 힐링콘서트

**일 시** 9월 17일-20일 화-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 17일(화) 부산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금정악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및 강사들로 결성된 후 매년 정악과 민속악을 기반으로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금정악회의 무대.

### 18일(수)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초청공연

군립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초청공연  
**프로그램**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방아타령~자진방아타령', 육자배기를 주제로 한 '연정가(戀情歌)' 등 수곡

### 19일(목) 젊은 풍류 3인3색

아쟁주자 김평진, 가야금주자 신아름, 김소정 등 차세대 국악을 책임질 3인의 젊은 국악인이 마련하는 3인 3색 무대.

### 프로그램

한일섭제 박대성류 아쟁산조, 가야금 병창 '홍보가' 중 '제비점고-제비노정기', 은하수, '적벽가' 중 '화룡도', 25현 가야금을 위한 '월지애가(月池愛歌)'[위촉초연]

● 장구/송강수



### 20일(금) 최윤영의 민요이야기

경상도지역의 민요를 채집하여 소개해오고 있는 국악인 최윤영과 경상도민요보존회, 어울림라라소년소녀예술단이 들려주는 경상도 민요이야기.

### 프로그램

동래아리랑, 울산 아이 어르는 소리, 는실댕기타령, 장사치노래, 하동재첩소리 등

## 피아니스트 금찬이 독주회 그림으로 듣는 음악여행

**일 시** 9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트락 010-5468-4658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금찬이 독주회.

이번 무대는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1909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작곡되어 출판되었던, 드뷔시의 표제가 있는 열두 개의 피아노곡 중 일부와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을 모네 등 유명 화가의 그림을 통해 음악을 눈으로 보면서 듣는 색다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 장일훈 클라리넷 독주회 클라리넷으로 듣는 세계테마 시리즈 -프랑스&미국 편-

**일 시**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트락 010-5468-4658



독창적인 레페토리로 클라리넷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일훈의 3번째 독주회.

고신대학교와 미국 캠벨대학교 석사, 듀케인대학교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장일훈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단원, 부산아카데미 8중주 창단 및 단원, University of Arizona Clarinet Choir 부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장일훈은 프랑스와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와 번스타인의 곡을 통해 그만의 풍부한 소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김영민

##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제9회 짜장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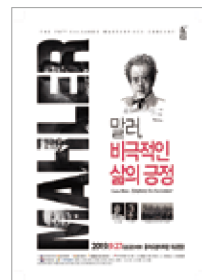
**일 시**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00(오후 6시부터 짜장면 먹기) 음악풍경 연습실  
**입장료** 참석비 1만원(사전 예약)  
**문의** 음악풍경 987-5005



콘서트가 열리기 한시간 전인 6시 근처 중국집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짜장면을 시식하고 공연 뒷풀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이색 콘서트 '짜장콘서트'. 지역의 음악가들을 초청, 하우스콘서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방주원, 바이올리니스트 권주연, 피아니스트 박소미가 출연, 창작가곡 및 유럽 3국을 상징하는 명가곡을 들려준다.

## 제70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말러, 비극적인 삶의 긍정

**일 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인터파크 예매시 30% 할인)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지난해부터 을숙도문화회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로 마련되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회관으로서 첫 도전으로 큰 화제를 모은 을숙도문화회관

의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로, 미래에 겪게될 말러의 비극적 삶을 예견이라도 하듯 극도의 절망과 비통함을 담고 있는 교향곡 제 6번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백진현
- 연주/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기타공연장

연극 | Play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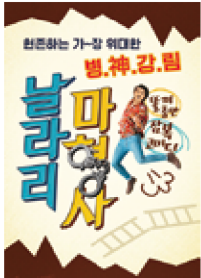
일 시 3월 1일(금)-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9/13일 휴관) 해바라기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극단 바라 1600-1716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좌충우돌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본 하영과 소희는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한다. 마지막 인생이 걸린 택시에 탑승한 하영, 그러나 느긋해도 너무 느긋한 택시기사 민수의 운전 실력, 과연, 하영은 제 시간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연극 날라리 마형사

일 시 6월 6일(목)-12월 1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상에서 제일 예리한 형사의 코믹 잠입수사극 '날라리 마형사'. 좌천될 위기에 놓인 마형사는 연출가 맹가진 살인사건에 의문을 가지고 '극단 연병임(연기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모임)'에 막내단원으로 잠입에 성공한다. 마형사는 허당미를 발산하며 연출가 맹가진과 여러 사건으로 얽히고 설킨 단원들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날라리 마형사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코믹연극 달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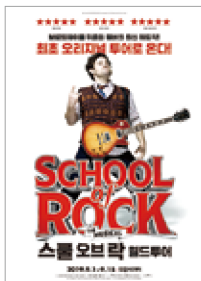
일 시 5월 25일(토)-10월 31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9/13일, 9/17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극단 바라 1600-1716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달동네'. 월남전 참전 중 행정차오로 전사자 처리된 아버지의 잘못된 전사자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부산 달동네로 이사를 오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달동네 사람들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간다. 전쟁 중 심한 화상으로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전국을 헤매다가 가족들을 만나지만, 가족들은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뮤지컬 '스쿨 오브 락' 월드투어

일 시 9월 1일(일)-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13일 오후 6:00, 15일 오후 2:00, 월요일 공연 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VIP 16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 의 클립서비스 1577-3363



잭 블랙 주연의 동명의 히트 음악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스쿨 오브 락' 월드투어 부산공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를 탄생시킨 뮤지컬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최신 히트작으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뒤흔든 감동 에너지를 최초 월드투어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주인공 '듀이'의 가슴 뛰는 스토리가 영화를 뛰어넘어 폭발하는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한다.

국민연극 라이어 1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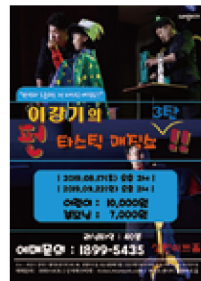
일 시 5월 31일(금)-10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8:00, 일·공휴일 오후 1:00, 4:00(월요일 공연없음, 추석연휴 공연시간 확인)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지난 1999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국민연극 '라이어 1탄'. 평범한 택시기사 존 스미스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2명의 부인 메리와 바바라를 두고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는 내용으로, 기막힌 거짓말을 통해 속고 속이는 인간사를 통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빠른 전개와 더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속에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단순한 코미디극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함을 선사한다.

이강기의 편타스틱 매직쇼 제3탄

일 시 9월 22일 일요일 오후 2:00 성원아트홀
입장료 일반 7천원, 어린이 1만원
문 의 성원아트홀 1899-5435



성원타공주식회사(대표이사 성기인)가 강서구 명지신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설립한 성원아트홀이 생활 속의 예술 체험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마술사 이강기가 펼치는 환상적인 매직쇼로 관객들을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문화판모이라  
거기, 두루마일이 있다**

**일 시** 9월 23일(월)-28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한결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원(예약시 30% 할인, 15세 이상 관람)  
**문의** 문화기획 ACTs 010-9701-0712



지난 2015년 문화판모이라의 창단공연으로 초연되어 당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함께 받았던 '거기, 두루마일이 있다'. 두루마일을 방문한 고고학자 서혜, 선운당 고택의 문화유산해설사 남풍, 그리고 두루마을에서 나고 자란 대철과 미순네 등 극중 인물이 '역사'라는 공적 담론과 '사랑'이라는 사적 담론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통해 우리들이 고민하는 현실과 해석, 그리고 사실과 진실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 작, 연출/김숙경

**무용 | Dance**

**제28회 춤패 배급새 정기공연  
각시覺時-불현듯, 알아차리다**

**일 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춤패 배급새 010-4547-4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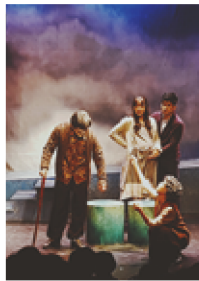
춤패 배급새 예술감독 하연화의 안무로 선보이는 창작춤 '각시覺時-불현듯, 알아차리다'는 나의 깨달음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살고 있는지, 잘라일지라도 모심과 비움, 나눔의 지혜를 알아차리며 살고 있는지를 작품 속에

너지 넘지는 춤사위로 만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하연화는 현재 하연화무용단 대표, (사)한국춤협회 이사로서 있으며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안무/하연화 ● 연출, 대본/김선관  
● 출연/하연화, 강경희, 김시현, 이연정, 정현주 외

**뮤지컬 국화꽃향기**

**일 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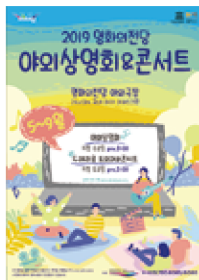


지난 2000년 출판대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김하인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국화꽃향기'. 대학 신입생 승우는 지하철에서 첫눈에 반한 미주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미주에게 승우는 그저 '후배'이다. 7년 후 사회에 나와 재회하게 된 어느 날, 변함없는 승우의 사랑에 미주는 마음을 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어렵게 생긴 사랑의 결실이 주는 기쁨도 잠시 미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영화 | Movie**

**2019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일 시** 9월 11일(수), 18일(수)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타트인 야외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11일(수)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겪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세계와 유머를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 발레로 만날 수 있다.

**18일(수) 오페라 '토스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비극적인 연인의 이야기를 그린 오페라 '토스카'를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공연실황으로 만날 수 있다.

**인형극단 꼬꼬마 인형극 인어공주**

**일 시**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성원아트홀  
**입장료** 일반 7천원, 어린이 1만원  
**문의** 성원아트홀 1899-5435



성원타극주식회사(대표이사 성기인)가 강서구 명지신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설립한 성원아트홀이 생활 속의 예술 체험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영작동화를 인형극으로 제작한 인형극단 꼬꼬마의 인형극 '인어공주'가 펼쳐진다.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붉은 수수밭**

**일 시** 9월 16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15세 관람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2019년 9월 상영회.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9월에는 1920년~40년 중국 산둥성 지방을 배경으로 빈둥에서 태어난 한 여자의 기구한 생애를 그린 '붉은 수수밭(중국, 1987년 작, 상영시간 90분)'이 상영된다.

기타공연장

금정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일 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선착순 입장)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 우수공연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금정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9월 상영회로,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을 감상할 수 있다.

스윙 음악이 품은 리듬과 에너지를 현대적 움직임으로 풀어내어 '스윙의 새로운 맛'을 선사하는 '스윙'은 스웨덴 재즈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의 흥겨운 재즈 라이브와 함께 어우러지는 국립현대무용단의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행사 | Event

9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10:00  
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원(1회 수강료)  
**문의**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월) 오후 7:00 김명우 교수의 마음공부(5)**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그 두 번째 이야기  
● 강사/허암 김명우(철학박사, 불교학자, 동아대 교양교육원 전임교수)

**3일(화) 오후 7:00 재즈를 탐하다(1)**  
재즈, 그 기원과 역사  
● 강사/이기념(동대 음악학과 교수)

**5일(목) 오후 7:00 박승섭교수의 손자병법(1)**  
싸움의 원리와 원칙  
● 강사/박승섭(부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5일(목), 19일(목), 26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 '論語,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9일(월) 오후 7:00 절 들뢰즈의 베이컨 읽기(1)**  
문제적 화가, 베이컨을 말하다

콘서트 | Concert

2019 오늘같은 밤-소란

**일 시**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국제신문 500-5222

그대라는 명작 with  
휘성 & 레드브레인 소극장 콘서트

**일 시** 9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북구문화빙상센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4

바비킴 콘서트 '사랑...그놈'

**일 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전석 8만8천원  
**문의** (주)전공이엔티 1522-2061

2019 '만9,900원의행복'  
서영은 콘서트 시즌 4

**일 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부산홀  
**입장료** VIP석 2만9천백원, R석 1만9천9백원, S석 9천9백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최백호 콘서트 'seven'

**일 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문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2019 바이브X장혜진 THE CONCERT  
두남자 그여자

**일 시** 9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문의** (주)월드쇼마텍 1566-5490

● 강사/최영송(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연구공간 로봇 프로젝트 대표)

**16일(월) 오후 7:00 우주관 오딧세이(3)**  
'인생이란 무대의 배우이자 관객' 양자 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 강사/조승현(웹진 인저리타임 대표,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7일(화) 오후 7:00 무의식과시각예술(4)**  
이창동감독 영화, 시, 밀양, 버닝을 배회하는 '초자아와 광기'라는 유령

● 강사/강성한(예술학박사, 부산대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

**24일(월) 오후 7:00 레비나스 철학의 현실적 의의(3)**  
용서와 선물-레비나스에서의 삶과 시간성  
● 강사/문성원(부산대 철학과 교수)

**25일(화) 오후 7:00 정해성의 문화공간(7)**  
우리시대의 예술가(1) 출판, 매체, 비엔날레, 아트 페어, 연주, 공쿠르에 관한 성찰

●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문학박사, 문화공간 Raum-Y 대표)

**31일(월) 오후 7:00 셰익스피어의 문제극 읽기 III**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에 드러난 대체와 단층생식의 환상

● 강사/김해룡(영문학박사, 前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가을에 듣는 실내악 이야기 I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회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올해 5월 700회 특집음악회를

를 가진 바 있다.

**3일(717회)** Johann Sebastian Bach Chamber Music

**10일(718회)** Joseph Haydn Chamber Music

**17일(719회)** Wolfgang Amadeus Mozart Chamber Music

**24일(720회)** 이달의 책 읽기 '예술, 존재에 휘말리다'(이진경 저, 문학동네)

##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연제구 평생학습관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분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3개월 15만원(연제구 평생학습관 무료)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前 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음악입문자를 위한 해설감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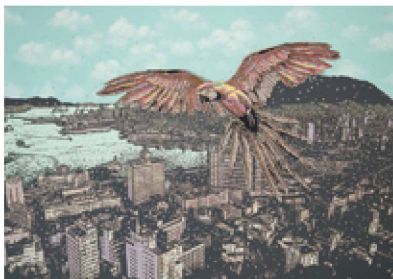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스펀디나 교향시 '몰다우 강'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생상스 '오르간 교향곡', 헨델 '양궁의 불꽃놀이' 모음곡  
드뷔시 '달빛', 베토벤 '월광', '비창' 소나타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비발디 '글로리아'

## 전시 | Display

## 'GREEN UTOPIA:공존'展

**일 시** 7월 17일(수)-10월 10일(목) BNK아트갤러리  
**문의** BNK아트갤러리 246-8975



도시와 자연의 유토피아적 결합을 보여주는 박기훈 작가 초대전. 이번 '공존(共存)' 시리즈에서는 캔버스 위에 다양한 색상의 물감을 여러 겹 칠하고 이를 깎아내는 채각(彩刻) 기법으로 도시에 대한 삭막함과 스산함, 문명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작가의 기대감을 표현한 작품 20여점이 소개된다.

##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일 시** 9월 10일(화), 23일(월), 24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입장료 전석 2만원(23일 강좌는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0일(화), 24일(화)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음악평론가 광근수의 클래식 인문학강좌로, 10일에는 합창이 거처 온 길을 되짚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들을 감상해보는 '합창음악의 향연'을, 24일에는 원시주의와 미니멀리즘의 총화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를 만날 수 있다.

●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23일(월) 색이 삶을 말하다 제29강**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_폴 고갱 편**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로만 베작\_시대의 고고학

**일 시** 8월 17일(토)-11월 20일(수)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로만 베작의 주요 작업들 중 '사회주의 모더니즘'과 '평양' 시리즈를 엄선하여 아시아 최초로 소개하는 고은사진미술관 세 번째 해외교류전 '시대의 고고학'. 로만 베작은 이상사회를 꿈꾸며 규범과 질서를 만들었던 모더니즘이 인간 존재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또 국가체제와 제도, 사회이념과 질서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 안을 꿰뚫고 중첩되는지를 탁월하게 보여준다.

## 해운대도서관 인문학으로 세상읽기 림태주 작가 초청 북 토크 콘서트

**일 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2:00  
해운대도서관 시청각실  
**입장료** 무료(www.haeundaelib.or.kr 신청)  
**문의** 해운대도서관 평생학습과 709-0952~4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인 림태주 작가 초청으로 마련되는 북 토크 콘서트. 글쓰기와 독서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외부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림태주는 대표 저서로 '관계의 물리학', '그토록 붉은 사랑', '이 미친 그리움' 등이 있다.

## 제143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가을' 주제 명시 낭송회

**일 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관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 노재경-홍철순 듀오 오석버루전 2019

**일 시** 9월 4일(수)-9월 28일(토) 갤러리 UM  
**문의** 스페이스 움 557-3369



충남 보령에서 2대째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있는 버루장인 석전 노재경 선생과 대학에서 제품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아티스트 홍철순 교수의 최근작 중심으로 마련하는 컬래버레이션 듀오전.

## 'Happy go lucky Berr'展

**일 시** 9월 11일(수)-10월 6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 예술경영자의 직업병, 노심초사

### - 우리는 왜 관객이 적을까?

지난 8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첫 번째 공연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예민하게, 때로는 시원시원하고 힘 있게 단원들을 이끈 지휘자에게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전문가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습 내내 행복했다'는 단원들도 공연이 끝나고 나서 악기를 내려놓은 채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일제히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드문 일입니다. 지난 6월 28일 역시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시립합창단의 첫 번째 공연도 좋은 지휘자 후보에 의해 잘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합창단원들 또한 만족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간의 공모 방식보다 추천제에 의한 후보들의 선정 자체가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앞으로도 국악관현악단은 3명의 다른 후보자와의 공연을 더 치를 예정이고, 합창단은 2명, 무용단도 2명의 수석 안무자 후보와의 공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자들인 만큼 이들도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화제 속에 막을 내렸지만 사실 아쉬움도 큼니다. 관객이 기대만큼 객석을 꽉 채우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클래식 연주자나 뮤지컬, 발레 같은 공연의 관객은 그나마 좀 낫지만 국악이나 합창, 오페라, 연극, 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해석이나 양식적 변화를 보이는 공연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할 때마다 저희는 늘 - 제가 공연기획자나 예술경영자의 직업병이라고 부르는 - 노심초사를 하게 됩니다. 빈 객석을 바라볼 때의 민망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관객이 없어 노심초사하는 것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이 아직 우리에게서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웬만한 극장이라면 해마다 적어도 80% 이상의 객석을 유료관객으로 채우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공연장의 대부분을 채우는 많은 프로그램 수를 가지면서요. 우리와는 천양지차입니다.



특히 유럽의 극장은 오래 전부터 관객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복잡적이어서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연극,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와 같은 공연예술 양식의 오랜 역사와 진화,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발달해 온 극장 문화와 일정 규모의 훈련된 관객, 유서 깊은 예술지원제도, 더 넓게 보면 일찍이 세계를 무대로 이룩한 경제 부흥과 부유한 시민 계급의 출현, 대를 이어 온 교양의 축적 등 여러 각도에서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19세기 초부터 거의 1세기에 걸쳐 지속된 ‘문화팽창’은 관객의 규모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문화팽창이란 어느 시기에 문화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널드 서순은 <유럽문화사 1권>에서 그 요인을 사회·경제·교육적 배경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자유 평등 박애 정신과 부(富)를 양손에 쥔 중간계급의 등장, 이전까지 귀족계급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던 문화소비를 과시하고 싶었던 이 계급의 욕망, 인쇄술과 철도 등 지식의 대중화와 전파를 위한 기술의 발달 등이 그것들입니다. 거기에 빠서는 안 될 공신들이 있었으니 두터워진 예술가 층과 이들을 이용하여 ‘문화’사업으로 돈도 벌고 영향력 행사도 하고 싶었던 흥행사들, 돈은 벌지 못하지만 예술과 시민사이를 가깝게 하고자 했던 기획자들(주로 예술가가 되기 어려웠던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예술을 즐기면서 지원하던 수많은 왕(독일과 이탈리아는 19세기 후반 통일되기 전까지 큰 도시마다 왕과 귀족들이 있었죠)과 귀족, 재력가들의 증가는 가장 큰 문화·경제적 기반이었고, 학교 공교육의 확대도 결코 빠트릴 수 없는 교양의 인프라였습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 이전까지 귀족 중심이었던 관객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겠지요. 문화가 뿌리가 되어온 정통 유럽인들의 질 높은 삶의 연원과 오늘날 정치가도 경영자도 노동자도 문화와 예술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들입니다.

비유럽 국가들의 문화 팽창은 어느 시기에 왔을까요? 가장 빠른 것은 역시 유럽과 문화적 DNA가 같은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문화 팽창은 거의 1세기 이상이나 늦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유럽의 순

회공연단들이 일찍부터 밀고 들어갔으며, 19세기부터는 몇몇 대도시에 커다란 공연장이나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럽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았지요. 미국이야 독립이니 내전이니 해서 그럴 여유도 사실 적었을 테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시작된 문화 팽창을 기회로 삼아 보편적인 경영시스템을 창안해 내고 오늘날 웬만한 공연장에서는 관객을 가득 채우는 진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예술팽창은 1990년대서야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정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시기부터 전국에 공연장이 보편화되고 예술단체도 그러하였지요. 그렇지만 공연장의 경우 팽창은 어디까지나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고,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시 된 것이 불과 20년도 안되었지요. 그래서 아직 안정적인 관객기반을 가지려면 멀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관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극장과 예술단체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얼마나 완성도 높은 공연을 그것도 꾸준히 보여 줄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완성도 높은 공연은 좋은 예술감독, 기량 높은 단원, 기획자들의 안목과 마케팅 능력 등이 모여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객도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3월이면 모두 끝날 좋은 예술감독 선정의 여정을 객석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 2019 하반기 시민뜨락축제 개막

9월 20일(금)-10월 25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매주 금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2019 시민뜨락축제'가 9월 20일부터 한달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기념으로 처음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시민뜨락축제'는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부산시민회관의 기획공연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무용,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 시민뜨락축제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6차례 시민들과 만난다.

### ◆ 부산시립무용단 '아시아 안무가 무용 강습 워크숍' 개최

9월 2일(월)-4일(수) 무용단 연습실

부산시립무용단이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전통 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향후 아시아 국가와의 공동제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아시아 안무가 무용 강습 워크숍'을 개최한다.

9월 2일부터 이틀간 부산시립무용단 연습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 국립예술원 초빙교수, 서울예술대학교 연기

과 교수로 있는 강만홍 교수를 초청, '숨춤-Zero experience'라는 타이틀로 나에게 벗어나 신명의 몸짓으로 변신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때 묻지 않은 한 경지의 춤을 배워본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앞서 8월 27일부터 사흘간은 '한국의 명무 특강'이라는 강좌를 통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45호 한량무 보유자이자 대한민국예술원 부회장으로 있는 조홍동 선생으로부터 '진쇠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 ◆ 9월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이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하는 맞춤형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9월에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 9월 4일(수) 10:30 조선비치호텔 그랜드볼룸\_국악관현악단 '경찰청 초청공연'
- 9월 24일(화) 10:00 남부민초등학교\_극단 '봄봄'
- 9월 25일(수) 10:40 다선초등학교\_극단 '봄봄'
- 9월 26일(목) 10:50 신남초등학교\_극단 '봄봄'
- 9월 27일(금) 16:00 벡스코 오라토리움\_국악관현악단 '부산광역시청 관광진흥과 TPO 총회 초청공연'
- 9월 27일(금) 17:00 문화가 흐르는 도시철도 공연
- 10월 1일(화) 10:50 덕양초등학교\_극단 '봄봄'
- 10월 2일(수) 10:00 부산광역시청 강당\_무용단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 10월 2일(수) 10:40 상리초등학교\_극단 '봄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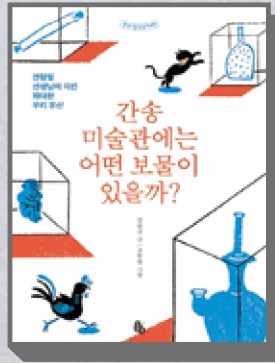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보물탐당**

장수찬 지음 / 김영사  
264p / 1만 4천 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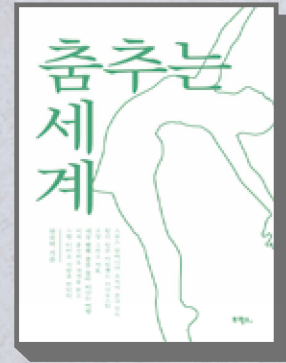
고서 전문 수집가인 장수찬 씨가 직접 수집한 고문서와 서책들의 컬렉션, 그에 얽힌 스무 가지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한문 공부 겸 취미로 고서 수집을 시작한 지 5년여, 지금까지 500여점을 모았다. 독학으로 한자와 용어를 익히며 고문서를 보는 안목을 키웠고, 고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에 푹 빠졌다. 고문서를 경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저자는 단돈 5천원에 고문서 한 장을 구입했는데, 조사해보니 1893년에 만들어진 서울 유생들의 성적표인 '도강기'였다. 얼마 후 한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150만원에 팔라는 연락을 받았다. 4만원에 산 낡은 시집도 알고 보니 귀한 자료였다. 저자는 시집에 수록된 인물들의 항렬들이 권세가의 족보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 깜짝 놀랐다. 시집의 정체는 조선 팔도를 호령한 한양 북촌 경화세족들의 공동 시집이었다. 이 시집은 4만원의 30배 넘는 가격에 박물관에 팔려가 현재 전시중이다. 고문서 속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보물탐당의 활약을 보면서 선조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춤추는 세계**

허유미 지음 / 브릭스  
244p / 1만 5천원

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기원이며 축제였을 것이다. 낯선 나라의 사람이 추는 춤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형적 유전자 덕분이다.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활동한 허유미 씨가 세계의 춤을 소개한다. 저자는 부산 예고와 이화여대 무용과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예술전문사를 졸업했다. '창작춤집단 가관'과 '라트어린이극장'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춤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책은 춤과 여행을 접목했다. 관광이 아닌 여행문화가 생기면서 다양한 주제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문화기행, 미식탐방, 미술기행, 박물관기행 등 어떤 주제도 여행과 함께 하면 즐거움이 배가된다. 저자는 자주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춤사위를 만났다. 발리의 전통춤, 조지아의 민속춤, 중국의 프로파간다 발레와 경상남도 고성 의 흥겨운 탈춤까지 저자가 춤으로 세상을 읽고 춤으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세계 곳곳을 무대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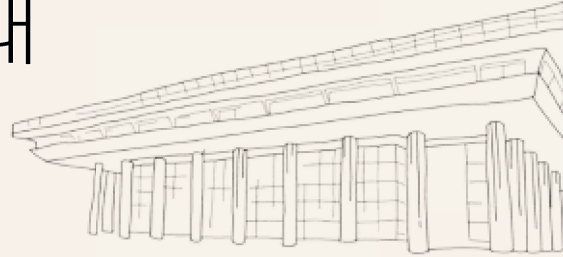
**간송미술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김민규 글, 조원희 그림 / 토토북  
216p / 1만 5천원

어린이들을 위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지킨 위대한 우리 유산을 소개한 책.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우수한 유물들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해외로 반출됐다. 그때 해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 중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 많다. 그 당시에 우리 유물을 지키고 간직하려고 애쓴 이가 간송 전형필 선생이다. 서울 종로에서 으뜸가는 갑부 집 아들로 태어난 간송 선생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우리 문화재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해 많은 재산을 털어 문화재를 사들였다. 그 문화재를 보관해 두기 위해 마련한 '보화각'이 지금의 간송미술관이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문화재를 지켜낸 것이다. 간송미술관은 나라가 없던 때 세워진 '최초의 사립 박물관'인 셈이다.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 겸재 정선의 작품들부터 간송 선생이 6·25 전쟁 피난길에서도 품고 지킨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담았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자 모든 것을 바친 간송 선생의 마음과, 문화재를 함께 소개하는 책이다.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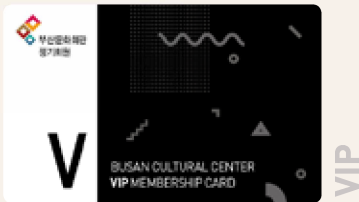


##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공통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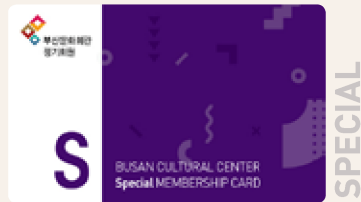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 연회비** : 10만원
-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 6매(공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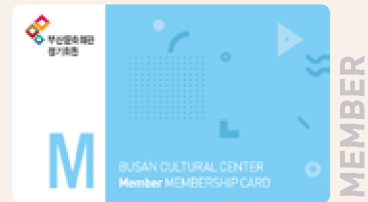
###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회비** : 5만원
-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 4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 할인매수** : 2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 입장료의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 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019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8월 14일(수)-30일(금)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8월 14일, 20일 공연은 제외)

## 2019 마티네 콘서트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8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종료]

9월 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9월 19일(목)-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회당 선착순 20매)

##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9월 28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영국 국립극장의 공연을 라이브로 만나다 ‘NT Live’

10월 6일(일), 11월 10일(일), 2020년 2월 15일(토),  
2월 29일(토) 오후 2: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30매)

##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화’ [종료]

11월 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선착순 30매)

## 어린이 뮤지컬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헌터즈’

11월 1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백혜선 독주회 [종료]

12월 3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선착순 30매)

## 2019 제아음악회

12월 31일(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선착순 40매)

## 빈필하모닉 앙상블 2020 신년음악회 [종료]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선착순 40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팀(607-6075~6, 6070~8)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원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중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옥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철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등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어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진영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임은자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영희 속편한내과 원장  
 정의화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종래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조충영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진경옥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하정태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한원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허 준  
 현임숙



- \* 후원회원 초청 음악회 개최 (연 4회 이상)
- \*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제공 동반 1인 포함/사전신청자에 한함
- \* 대극장 로비 명예의전당 네이밍
-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3층 로비 - 신설예정
-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 회원패 증정
- \*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 \*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사항**

구분	후원 금액	연회비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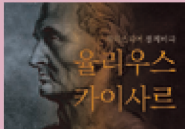
- \* 법인회원은 300만 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 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 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전시, 아카데미 등은 사전 신청자에 한함.
-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후원회 가입 익년도부터 별도의 연회비 있음.

새로운 감동, 다채로운 재미, 깊이를 더한 품격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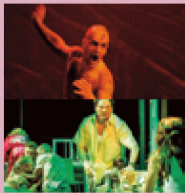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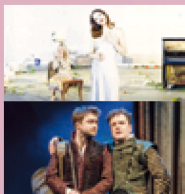
**9.7**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R 30,000 / S 20,000



**9.19** (목)~**22** (일) | 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7:30pm, 토·일요일 4:00pm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R 30,000 / S 20,000



**10.6** (일), **11.10** (일) 2:00pm, 6: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NT Live**  
**<프랑켄슈타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ll Seats 20,000



**20.2.15** (토), **2.29** (토) 2:00pm, 6: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NT Live**  
**<헤다 가블러>**,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All Seats 20,000

**페스티벌**



**8.14** (수)~**30** (금) | 문화회관 챔버홀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2019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All Seats 20,000



**12.26** (목)~**31** (화)  
 | 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챔버홀,  
 시민회관 소극장  
**2019 부산 신진예술인 페스티벌**  
 ※세부 일정 및 내용 추후 공지 / 패키지 제외

**무용**



**11.6** (수)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환상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하>**  
 R 80,000 / S 60,000 / A 40,000



**12.6** (금)~**7** (토) | 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R 80,000 / S 60,000 / A 40,000



**12.13** (금)~**14** (토) | 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11:00am, 7:30pm, 토요일 3:00pm  
**어른들이 보는 겨울동화 시리즈**  
**<미운 오리 새끼>** (렉처퍼포먼스)  
 (예술감독 이태상)  
 All Seats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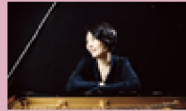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



**10.25** (금)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V 50,000 / R 30,000 / S 20,000



**11.14**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Pf. 임동혁)  
 V 120,000 / R 90,000 / S 60,000 / A 30,000



**12.3**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R 50,000 / S 30,000 / A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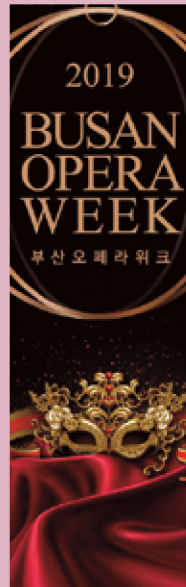


**20.1.1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 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20.2.15** (토) 5:00pm | 문화회관 대극장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오페라**



**9.30** (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R 50,000 / S 30,000 / S 20,000

**10.1** (화) 7:30pm | 문화회관 중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갈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R 50,000 / S 30,000 / S 20,000

**10.5** (토)~**6** (일) 6:0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전막 오페라**  
**<살로메>**  
 V 100,000 / R 70,000 / S 50,000 / A 30,000

**10.11** (금)~**13** (일) | 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7:30pm, 토·일요일 6:00pm  
**극적인 밀도, 음악적 긴장과 조화,**  
**베르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V 100,000 / R 70,000 / S 50,000 / A 30,000

**가족 & 어린이**



**8.30** (금) 7:30pm | 문화회관 중극장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R 20,000 / S 10,000



**9.28**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이왕자 이야기>**  
 R 20,000 / S 10,000



**11.16**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 헌터즈>**  
 R 20,000 / S 10,000



**마티네 콘서트**



**8.28/10.2/11.20** (수) 11:00am  
| 문화회관 중극장  
**오전에 듣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All Seats 10,000 \*티켓 예매 진행 중(매거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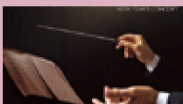
**콘서트**



**12.31** (화) 10:3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제아음악회** (객원지휘 여자경)  
R 30,000 / S 20,000 / A 10,000  
\*세부 내용 추후 공지 / 패지키 제외



**9.6** (금)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조선의 아이들, 오방신 이희문의**  
**<거침없이 열썬>**  
V 50,000 / R 30,000 / S 20,000



**20.1.21** (화)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새해음악회**  
All Seats 10,000



**20.2.14** (금) - **15** (토) | 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추억의 포크송 <동물원 콘서트>**  
R 55,000 / S 44,000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안무자 선정 공연 시리즈**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부산시립합창단**



**6.28**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전쟁과 평화 - 6월의 기억>**  
(객원지휘 김인재)  
All Seats 10,000



**9.26**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  
(객원지휘 이기선)  
All Seats 10,000



**11.19**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세계를 품다>**  
(객원지휘 Adrian Stanache)  
All Seats 10,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8.22**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마스터 피스 in 부산>**  
(객원지휘 김종욱)  
All Seats 10,000



**10.31**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  
**<공존(共存): 자연 그리고 인간>**  
(객원지휘 박상후)  
All Seats 10,000



**12.24**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Odyssey : 긴 여정>**  
(객원지휘 진성수)  
All Seats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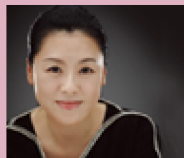


**20.2.25**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  
**<서로 가는길>**  
(객원지휘 문형희)  
All Seats 10,000

**부산시립무용단**



**11.28** (목)~**29**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 - South Breeze>**  
(객원안무 이정운)  
All Seats 10,000



**20.3.19** (목)~**2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Odyssea FE2020b>**  
(객원안무 김수현)  
All Seats 10,000

**부산시립예술단 시즌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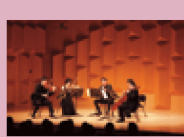
**9.27**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  
**<프렌치 호른>**  
(지휘 최수열, 호른 김홍박)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0.25**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지휘 최수열, 첼로 김두민)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1.22**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6회 정기연주회**  
**<아홉.열.열하나.>**  
(지휘 최수열, 오르간 신동일)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1.29** (금) 7:30pm | 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실내악 공장>**  
All Seats 10,000



**12.4** (수) 9: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심야음악회>** (지휘 최수열, 이민형)  
All Seats 10,000



**12.19** (목)~**2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7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지휘 최수열)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20.1.16** (목), **1.17**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8회 정기연주회**  
**<2020 신년음악회>** (지휘 최수열)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20.2.14**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지휘 아드리앵 페뤼송)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부산시립극단**



**12.12** (목)~**14** (토) | 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 (객원연출 양지웅)  
All Seats 10,000

# Package Ticket

# 2019-20 BSCC

## 명품 패키지

- 명품 공연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명품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명품 1.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명품 2.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관능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명품 3.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명품 4.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명품 5.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명품 6.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명품 7.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 연극 패키지

- 연극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연극 1.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연극 2.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 Ⓜ 60,000 > 42,000   Ⓞ 40,000 > 28,000

## NT Live 패키지

- 4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NT Live 1. <프랑켄슈타인>  
NT Live 2.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NT Live 3. <헤다가블러>  
NT Live 4.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 클래식 음악 패키지

- 음악 공연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음악 공연 3편 이상 구매 시 20% 할인
- 음악 1.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음악 2.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음악 3.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음악 4.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음악 5.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 오페라 패키지

- 오페라 공연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오페라 공연 2편 이상 구매 시 30% 할인
- 오페라 1. 2019 오페라 WEEK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2. 2019 오페라 WEEK 갈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오페라 3. 2019 오페라 WEEK 전막 오페라 <살로메>  
오페라 4. 극적인 밀도, 음악적 긴장과 조화, 베르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 무용 패키지

- 무용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무용 1.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환상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무용 2.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무용 3. 어른들이 보는 겨울동화시리즈 <미운오리새끼>(렉처퍼포먼스)
- Ⓜ 180,000 > 144,000   Ⓞ 140,000 > 112,000   Ⓐ 100,000 > 80,000

# Season Program

## 패키지 문의 및 예매

###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ARS ① 고객센터

ARS ② 외국어 문의

## 셈버 페스티벌 패키지

- 페스티벌 공연 10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페스티벌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페스티벌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키즈 패키지

- 어린이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어린이 1.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어린이 2.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어린이 3.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헌터즈>  
④ 60,000 > 30,000    ⑤ 30,000 > 15,000

##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안무자 선정 공연시리즈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패키지

- 공연 7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 국악 공연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합창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무용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거장 1.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김인재)  
거장 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김종욱)  
거장 3.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이기선)  
거장 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박상후)  
거장 5.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Adrian Stanache)  
거장 6.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객원안무 이정윤)  
거장 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진성수)  
거장 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문형희)  
거장 9.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객원안무 김수현)

## 부산시립예술단 자유패키지(총 10개)

- 교향악단 2019년 특별연주 및 2020년 정기연주회, 극단 공연 등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예술단 공연 2편 이상 동일등급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2019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외

## 자유 패키지

- 문화/시민회관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문화/시민회관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제외

##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 상품은 묶음 상품으로 개별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 상품은 구성공연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화취소만 가능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제32회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19년 제32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 내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행사명	모집부문	비고
제32회 부산합창제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합창단 (혼성, 남성, 여성)	참가신청서 및 악보제출

## 행사일

- 2019년 10월 21일(월)~2019년 10월 24일(목) 1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공고기간 및 사전모임 일정

- 공고기간 : 2019년 8월 1일(목)~9월 6일(금)
- 참가단체 모임 : 2019년 9월 18일(수) 14:00(예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년 8월 26일(월)~2019년 9월 6일(금)
- 접 수 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 대연동 (재)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소재
  - ※ 방문접수 또는 eunjii89@bscc.or.kr 전자우편으로 접수가능
  -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평일 18:00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합창단 프로필 및 연혁(6줄 기준), 악보, 지휘자, 합창단, 반주자, 단장 사진 각 1장  
(사진 및 악보는 eunjii89@bscc.or.kr로 jpg 및 pdf 형식으로 제출가능)
  - ※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서류와 함께 제출
  - ※ 구비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제32회 부산합창제 연주순서는 시니어, 여성, 남성, 혼성합창으로 진행

## 접수 및 문의사항

- 부산시립합창단(담당자) : 051-607-3115~6



# 거침없이 일씨구~

오방신,  
조선의 아이돌 이희문  
| with 농능, 음악동인 고희, 속피스타즈 |

2019.  
09.06.  
(금)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예매 051)630-5200 www.bscc.or.kr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문화  
한강

##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2019.9.28(토)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5세 이상관람)  
문의 및 예매 www.bscc.or.kr 051)607-6000(ARS1번)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부산문화회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문화  
한강

# 부산에서 타시달리는

## 지후천 1호선

Rock  
Musical

2019. 9. 7.(토) 오후 3시 | 변한·연출 김민기 | 음악감독·편곡 정재일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부산문화회관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작 Volker Ludwig's Linie 1 - Musikalische revue | 음악 Berger Heymann | 제작 Ssangyong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 문의 및 예매 www.bscc.or.kr 051)607-6000(ARS1번)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문화  
한강

<p>4.24 파가니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 - 모차르트 - 지휘 정병휘</p>	<p>5.22 사람의 교육, 돈 파스칼레, 람베르티의 루치아 - 도나제티 - 이동신</p>	<p>6.26 리굴레토,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 베르디 - 11.20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Best of Best 조윤범 피리넷 엑스</p>
--	--	--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 오페라 이야기

오전에 펼쳐지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유쾌한 해설로 명품콘서트를 선보입니다.

am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8.28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 구노 - 지휘 김봉미</p>	<p>10.02 라 보엠, 도스카, 나비부인 - 푸치니 - 지휘 윤상운</p>	<p>성우 손지현</p>
---	---	---------------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 입장료 전석 10,000원  
문의 051)607-6000 / 6075(영18층)



25<sup>th</sup>  
ANNIVERSARY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25주년 기념

# 제61회 정기연주회 축제

program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C. Saint-Saëns Le Carnaval des Animaux
-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K.219 1악장  
W. A. Mozart Violin Concerto A Major No.2, K.219
-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J.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 \*드보르흐 카니발 서곡  
A. Dvořák Carnival Overture Op.92
-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러블 편곡)  
M. Mu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지휘 이명근 바이올린 이상진 바이올린 김규우

2019. 9. 20(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공연 2,000원 주회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세일버스 운행(주회) 운영시간: 18:30, 19:00 세일버스: 18:30 ~ 19:00 (대안역 5번 출구에서 유인로까지 방향 100미터까지 공연 종료 15분 후 - 문화회관 주차장 입구 출발 → 대안역 하차)

#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지휘 김수현 연설 김희연 피아노 이영욱 인우지도 노금선 성악지도 김희정  
Make a joyful / Die Meere / Ubi Caritas / Clap yo hands / 어느 가을날의 만남 / 얼마나 너무나 / 날리려 아리랑 / 날오는 양탄자  
우정출연: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지휘: 김태경)

2019. 9. 21(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회: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티켓 | 공연 2,000원 문의 | 607-3117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연주회 Series ②

## 자녀노래하다

부산시립합창단 176회 정기연주회

3인의 수석지휘자 후보 중 한 분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두 번째 공연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예술성과 리더십이 뛰어난

2019. 9. 26 Thu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객원지휘 이기선

Program

- |  |  |   |
|--|--|---|
| <p><b>Opening Songs</b><br/>Kylie from "Memorial" / 문종 열여러<br/>자전<br/>남의 사랑 도라지들<br/>희망 열풍 Song of The Universal (99주의 노래)<br/>19th December Songs</p> | <p><b>희망</b><br/>Deep River (20: 03)<br/>Swing Low Sweet Cherish (04) 현 지기선<br/>19th December Songbook<br/><b>세계현악</b><br/>Shenandoah (16:55)<br/>Zum Gal Dance the Horn (중독의 춤)</p> | <p><b>꿈</b><br/>Lux Aurumque (19:05) / Sleep (18)<br/><b>우주</b><br/>Luminous Night of the Soul (연애의 밤) 현 지기선<br/><b>함께하는 우리</b><br/>You Will Never Walk Alone (05: 05) 현 지기선 2019년 12월 20일<br/>사랑이 다할</p> |
|--|--|---|

주회: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 입장료: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607-3116(시립합창단) 051-607-6075(기획지원) | 60% 국가유공자 특별장려금, 다자녀가정, 영선부, 권호우자(2065세 이상), 30% 장애인(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예스, 스포츠, 대중매체) (학생증 소지자)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X  
The Richard Strauss Cycle IX - Complete Tone Poems

# 프렌치호른

FRENCH HORN

2019. 9. 27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베를리오즈 • 로마의 사육제 H. Berlioz • Roman Carnival, Op. 9
슈트라우스 • 호른 협주곡 제1번 R. Strauss • Horn Concerto No. 1 in E flat major, Op. 11
베를리오즈 • 「리어왕」 서곡 H. Berlioz • "King Lear" Overture, Op. 4
슈트라우스 • 교향시 「돈 후안」 R. Strauss • Tone Poem "Don Juan", Op. 20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호른: 김홍박 Hongpark Kim, Horn

주회: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대안역) 607-317(시립합창)  
발권: 9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입산부 30% > 정기회원 | 학생(2019.04.01 이후) | 외국인 > 단체(10~30명) 및 학생(100,000원) > 문화회관  
연: 세일버스 운행(주회) - 운영시간: 18:30, 19:00 세일버스: 18:30 ~ 19:00 (대안역 5번 출구에서 유인로까지 방향 100미터까지 공연 종료 15분 후 - 문화회관 주차장 입구 출발 → 대안역 하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창작극대본공모전

### ☑ 공모개요

- **공모목적**  
지역예술인의 공연제작지원 및 제작기회 제공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공공지원사업 확대
- **공모부문**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3개 부문  
(※ 분량 제한없음)
- **신청자격**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 있는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가능  
(※ 나이제한 없음)

### ☑ 수상내용

-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부문별 수상(총 3명)**  
※ 서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트로피 수여  
※ 수상작 중 1편을 선정 제작지원(회관 사정에 따라 1편 이상 제작 예정)  
※ 해당분야 선정작이 없을 경우 해당자 없음으로 공지 가능

###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9년 12월 20일(금)~12월 31일(화) 24:00까지 (12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book2580@bscc.or.kr)  
※ 3일 이내 접수희신메일 미수신시 반드시 확인필요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대본, 기타보완자료  
(CD/DVD, 악보 또는 음원파일, 추가자료 등 필요시 제출)

### ☑ 문의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 홍보마케팅팀(607-6070~8)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부산청소년 공연감상문 공모전

### ☑ 공모내용

-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중 작품 1편 이상 관람 후 감상문작성
- 200자 원고지 16~20매 분량(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형식 상관없음)  
※ 응모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주관 기관의 소유이며,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등 자료에 사용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 부산소재 중·고교 재학생, 대학생 개인

### ☑ 수상내용

- **대상(후원회장상) : 총 3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1명, 상금 70만원)**
- **최우수상: 총 6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2명, 상금 50만원)**
- **우수상: 총 9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3명, 상금 30만원)**  
※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트로피, 부상 수여  
※ 수상자 중 1명에게 부산광역시장상 별도 수여

###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 - 12월 31일(화)(12일간)

###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book2580@bscc.or.kr)

### ☑ 결과발표

- 2020년 1월 31일(금)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051-607-6070~8



혜택을 늘리다+ 감동을 더하다+

#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모집캠페인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 ◆ 모집기간

2019년 8월 ~ 12월

## ◆ 대 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 신청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팝업창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만 기입

## ◆ 당첨자 발표

2020년 1월 중

## ◆ 경품내용

선물 1	10명 (1인 2매)	2019 부산문화회관 전 공연 초대권
선물 2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
선물 3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
선물 4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
선물 5	100명 (1인 5매)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선물 6	100명	월간 <예술에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 7	100명	부산문화회관 텀블러

\* 상품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GOD DESIGN  
산업자원부 선정

iF  
iF Award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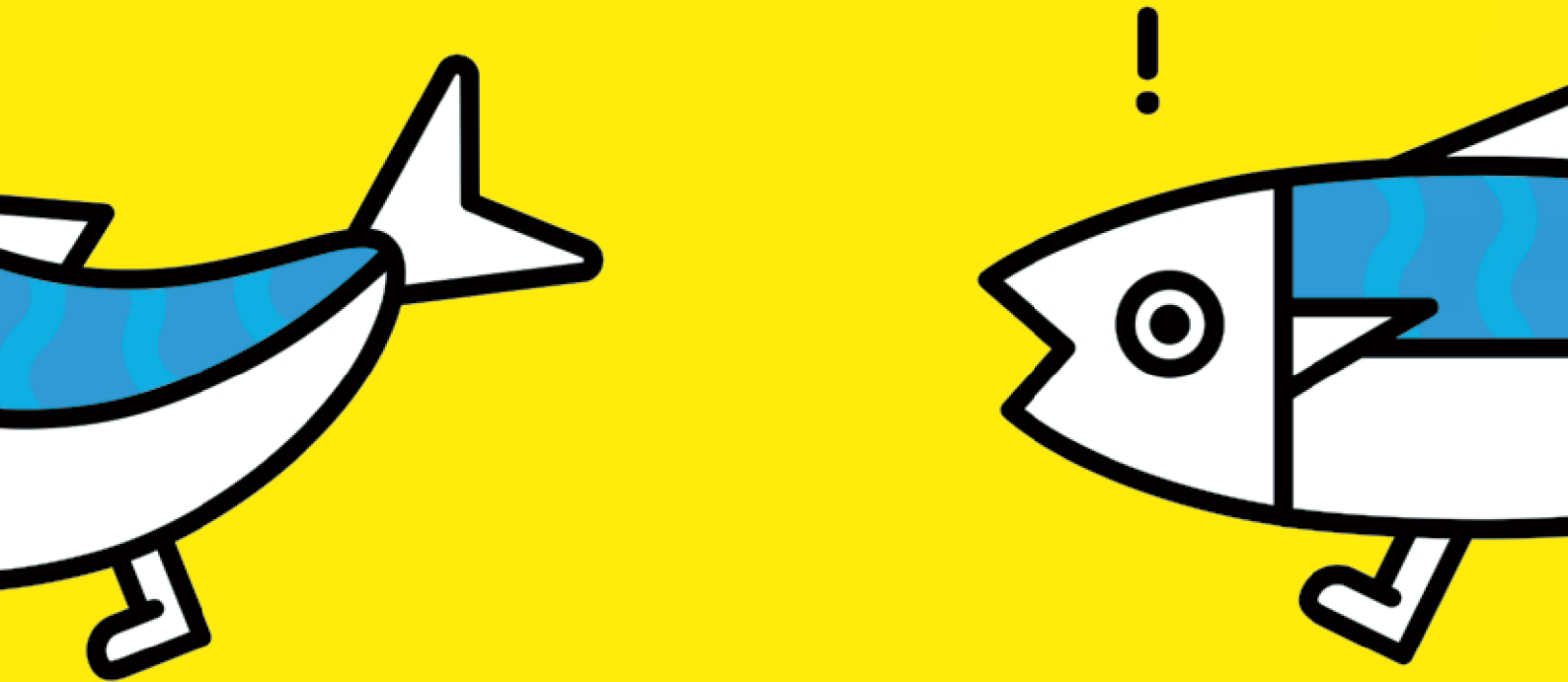


Instagram



Twitter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www.designivy.com](http://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http://www.designbusan.kr)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T]051)636.1216 [E]info@designbusan.kr

KBRAIN  
POWER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우수디자인전문회사  
Best Design Company in Korea

대한민국  
DESIGN  
AWARD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reddot award  
Design excellence

iF  
DESIGN  
AWARD 2017

K-ESP  
기술전문기업

인재육성중소기업





G. Verdi OPERA

# RIGOLETTO

## 리골레토

2019. 10. 11(금) -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강석희

연출 이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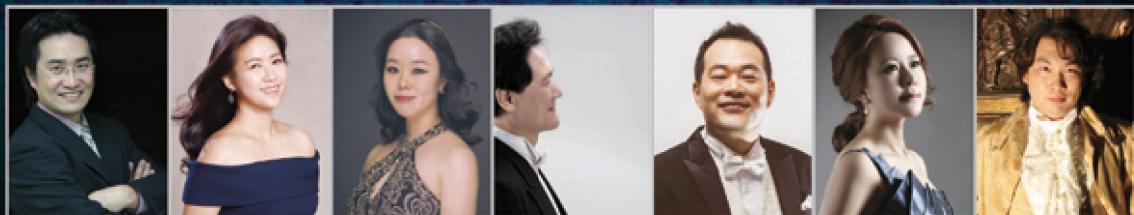
리골레토 고성현

리골레토 박정민

리골레토 김종표

만토바 이재욱

만토바 전병호



만토바 김지호

질다 강혜정

질다 박현진

스파라푸칠레 김요한

스파라푸칠레 박상진

막달레나 손혜은

몬테로네 윤오건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V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예매 및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